

에픽세대를 위한 에픽예배
: 영은교회 성금요일 예배 연구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박대원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0년 5월

Copyright © 2020 Daewon Park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EPIC Worship for EPIC Generation

: A Study of Good Friday Service at Youngeun Church, Seoul, Korea

Daewon Park

Youngeun Church, Seoul, Korea

One of the most essential functions of the church ministry lies in the worship service. Regardless of the time, culture, and historical situation or background, the worship service has continued its change by maintaining one of the most effective forms for each time period for delivering the gospel. The change of worship service is still required today where transitions occur at an incomparably fast pace. As such, the churches today should ceaselessly throw questions to themselves about how to convey the whole essence of the gospel to the people of God through the worship service, which is one of the most essential ministries of the church, and such question should be continued until the Lord arrives.

However, most Korean churches of the day have adhered to the conventional form of worship service. In other words, Korean church worship services are thoroughly centered on the preacher which would require the unilateral delivery of his or her religious experiences and the messages from the Bible to the audience from a minister rather than mutual communication. Moreover, Korean churches have responded to the change of forms not only passively but also conservatively. As such, a thorough performance of the existing form within the limited time without mistakes is regarded as a successful worship service. Likewise, the service with the absence of the elements of an

EPIC(Experience, Participation, Image, Connection) has still been regarded as the right answer and performed accordingly. That is, amidst of the age that requires change, Korean churches have been responding to the needs of the times in the form of worship service that deny the change.

Although many churches in Korea have been experiencing trouble with the absence of young households, the worship service provided to the young couples in their 30-40s is still in the conventional and unilateral form without the elements of an EPIC.

In such circumstance, this study attempts to provide the opportunity to discuss the future direction of the church worship service in Korea, by examining how young married couples in their 30-40s respond to the service with the abundance of EPIC elements, and how a worship service with an ample amount of EPIC elements would be able to convey the essence of the gospel and service more effectively.

The EPIC elements are not of something new; rather, they are the abundant elements of the church since the earliest times that we have somehow missed and lost. As such, the worship service with EPIC elements would pursue the audience's direct experiences, as well as the connection between the community and an individual and between different individuals, by accepting the service not by relying solely on listening, but through diverse senses. The perspective of the study lies in that the worship service as the essential part of the church would gain its life and all the parts and functions of the church would be revitalized, only when people dream of the service with EPIC elements and proceed towards a more abundant form of service through relentless research and challenges.

국문초록

에픽세대를 위한 에픽예배

: 영은교회 성금요일 예배연구

박대원

영은교회, 서울, 한국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은 예배에 있다. 시대와 문화와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이 달라졌어도 예배는 항상 그 시대에 맞는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형태를 유지하며 변화해왔다. 그리고 이러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다. 그렇기에 교회는 좀 더 복음의 본질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전통적인 예배, 설교자 중심의 예배, 일방적인 예배의 형식을 고수하고 있고 예배 형식의 변화에 상당히 소극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철저하게 실수없이 정해진 형식을 수행하는 것을 성공적인 예배로 생각한다. EPIC(경험, 참여, 이미지, 연결성)적 요소가 부재한 예배가 지금도 정답처럼 여겨지고 드러지는 현실이다. 다시 말해 한국교회는 변화를 요구하는 시대 속에서 귀를 닫은 채 변화를 거부하는 예배로 시대에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많은 교회들이 젊은 가정의 부재를 호소하고 있는 한국 현실에서 30~40대 젊은 부부들이 EPIC의 요소가 풍부한 예배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지, 또 EPIC의 요소가 풍부하게 가미된 예배가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본질을 전달할 수 있는지 살펴봄으로 통해 지금 한국 교회의 예배가 추구해야 할 예배의 모델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며 방향성을 모색하는 기회가 되고자 한다.

예배를 통해 경험하며 직접 참여하고, 예배를 다감각적으로 체험하며 예배를 통해 공동체와 개인이, 개인과 개인이 연결되는 예배를 꿈꾼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꿈꾸며 예배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하며 나아갈 때 교회의 본질인 예배가 살아나고 다시금 교회의 모든 부분이 활성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거라 생각한다.

목 차

감사의 글	xi
표 목차	ix
그림 목차	x
I. 서론	1
한국 교회의 현재 상황	1
연구의 범위	3
II. 비EPIC적인 한국교회	5
이성적 예배	7
수동적인 대리자로서의 예배	10
문자적인 예배	12
공동체성이 결여된 예배	14
III. EPIC 세대를 위한 대한: 레너드 스윗의 EPIC이론을 중심으로	18
경험(Experience): 이성에서 경험으로	19
참여(Participation): 대리에서 참여로	23
이미지(Image): 문자에서 이미지로	26
관계(Connection): 개인에서 공동체로	29
IV. EPIC의 요소를 기반한 EPIC 성금요일 예배: 테네브레 예전	34
테네브레 예전이란?	36
기획 의도 및 목적	36
EPIC이 담긴 테네브레(Tenebrae)예전을 위한 준비	38
EPIC이 담긴 테네브레(Tenebrae)예전: 참여(Participation)	39

EPIC이 담긴 테네브레(Tenebrae)예전: 이미지(Image)	40
EPIC이 담긴 테네브레(Tenebrae)예전: 관계(Connection)	46
EPIC이 담긴 테네브레(Tenebrae)예전: 경험(Experience)	47
테네브레(Tenebrae)예전: 예식서	48
테네브레(Tenebrae)예전: 예배 공간디자인	60
V. 영은교회 성금요일 예배 연구 평가	62
필자의 평가	62
당회원들의 평가	65
예배위원회들의 평가	65
EPIC세대의 평가	66
교우들의 평가	67
VI. 결론	69
부록	74
참고문헌	119

표 목차

<표1> 테네브레 예전에 대한 평가표	67
----------------------------	----

그림 목차

<그림1> 교독 형태의 기도	39
<그림2> 시작 전 정보 영상과 브로셔(시각)	41
<그림3> 십자가와 가시면류관, 검은 천(시각)	42
<그림4> 장미꽃과 초(시각)	42
<그림5> 성찬대와 성찬(시각, 미각)	43
<그림6> 문화공연('보혈을 지나' -한국무용)	45
<그림7> 성만찬	46
<그림8> 물두멍과 섬유펜(촉각)	47
<그림9> 테네브레(Tenebrae) 예배 공간 디자인 배치도	60
<그림10> 테네브레(Tenebrae) 예배 공간 디자인	61

감사의 글

조금 더 목회적 전문성을 습득하고자 갈급함으로 시작했던 학업이 어느덧 종착지에 다다랐습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을 되돌아볼 때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먼저는 드루대학교 목회학 박사과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격려를 해주신 영은교회 이승구 담임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쁜 사역 속에서도 부교역자의 성장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배려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모든 과정을 낙오없이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진정한 스승의 모습으로 인격적으로 가르쳐주시고 넓은 지성의 장을 열어주신 조병호 박사님과 레너드 스윗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논문의 세부적인 것까지도 꼼꼼히 지도해 주시고 힘들고 지쳐할 때마다 끝까지 완주하도록 사랑으로 격려해주신 김영래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긴 여정의 학업을 진행하면서 동료의 완주를 위해 격려해 주신 영은교회의 교구 목사님들과 전도사님, 함께 성금요일 예배를 도움의 손길로 함께해주신 많은 성도님들이 없었다면 이 논문은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써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의 동역자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어머니와 아버지, 언제나 묵묵히 사랑으로 응원해주시는 장모님, 늘 부족한 남편을 지지해주고 후원해 주는 사랑하는 아내 허민영과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 시온이와 아들 시율이에게 감사합니다. 감사드릴 분들이 너무도 많아 제한적인 지면에 다 새겨 넣지 못하여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박대원

제 I 장

서 론

한국 교회의 현재 상황

예배는 시대와 역사, 문화와 상호작용 속에서 존재해왔으며 이러한 것들이 예배의 배경이 되어왔다. 오늘날의 사회문화의 변화는 과거 어느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교회 역시 이러한 변화의 민감하게 반응하며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지켜나가는 것이 요구되는 상황과 직면해 있다. 단일성만을 요구하던 시대에서 다양성을 요구받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순환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독교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을 통해서 관계가 갱신되고 확인되는 자리이다. 비록 하나님과 우리와의 본질적 관계와 내용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불변적이겠지만 그 관계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입고 있는 문화의 옷은 변한다.¹

이제는 전통적인 예배의 형식과 스타일만을 고수하는 것이 복음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 복음의 본질을 다양한 문화적인 요소 표현하는 예배의 필요성과 시대적 요구에 대해 교회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할 시기인

¹ 김순환, *21세기 예배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117.

것이다. 그렇기에 현재 드러지는 한국교회의 예배의 모습이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고 있는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온전한 본질적 의미를 전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특별히 포스트모던의 시대는 경험(Experience), 참여(Participation), 이미지(Image), 연결성(Connection)을 중요시하는 세대이다. 이 세대는 직접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매체에 익숙한 세대이며 밀레니얼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이다. 필자는 이들을 EPIC세대로 명명하고자한다. 이들 EPIC세대의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만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세대이다. 이런 만족의 요소를 잘 보여주는 것이 대표적인 단어는 “가심비” 라는 단어이다. 비록 생각보다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개인의 만족적 차원이 충족된다면 지출하는 것을 합리적인 소비로 판단하는 만족이 중요한 소비의 되는 세대이다.

‘트렌드코리아 2020’ 에서 선정한 2019년 대한민국 10대 트렌드 상품의 목록가운데 “한 달 살기” 와 “호캉스” 가 포함되었다. 처음 한 달 살기가 등장했을 때 제주도가 주된 정착지였다면 이제는 조금 비용을 더 들이고라도 가족과 함께 삶의 만족을 누리하고자하는 니즈(needs)가 반영되어 해외로 점차 범위가 넓어졌다. 이것에 대해 김난도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이후 주말을 이용해 틈새 휴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또한 많은 회사들이 유연 근무제, 출퇴근 시간 자율화를 채택했고 재택근무를 확대 허용하면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늘어난 것”²으로 분석하였다. 다시말해 조금 더 비싼 비용을 들이더라도 호텔에서 편한 침과 휴식을 추구하는 소비경향이 늘었다이러한 소비 경향은 현재

² 김난도 외 8인, *트렌드코리아 2020*(서울: 미래의 창, 2019), 46-47.

EPIC 세대가 가진 중요한 키워드가 “만족”임을 보여주는 실 사례이다.

그렇기에 그들은 신앙 안에서도 “만족”이라는 키워드가 충족되길 원한다. 과거 정적인 예배의 수동적인 입장에서 단순히 청중으로써의 위치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는 만족이라는 요소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주도성을 가지고 직접 예배를 경험하고 그 경험을 소유하고자 하는 세대이다. 레너드 스위트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다.

주일날 교회 앞에 사람들이 줄지어 선 풍경을 본 적이 언제였던가? 아마도 꽤 오래 되었을 것이다. 스타벅스는 교회와 달리 입장료는 무료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라. 도대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개별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진정한 체험과 관련하여 스타벅스에서 배울 점이 무엇이겠는가? 중간이 사라지고 양극단이 성장하는 현상은 궁극적인 경험을 찾는 사람들을 위한 신앙에 대해, 신앙과 삶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가?³

다시 말해 교회는 이러한 만족과 경험의 욕구를 얼마나 능동적으로 해결해주고 있는지, 궁극적인 신앙의 경험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충족시켜주고 있는지에 대한 시대적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기에 이들의 이런 회중들의 영적 욕구와 시대적 요구에 반응하는 한국교회의 예배의 모습은 무엇인지 돌아 봐야할 시기이며, 이러한 돌아봄을 통해 더 발전적인 예배, 효과적으로 복음의 본질이 전달되는 예배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포스트모던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물결 속에서 살아가며 EPIC적 욕구가 충족되기를 원하는 신앙의 세대를 ‘EPIC 세대’로 명명하고자 한다. 본

³ Leonard Sweet,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64-65.

연구는 EPIC 세대와 관련된 국내도서와 번역서를 참조하였다. 그 다음으로 학위논문에도 도움을 받았으며 주제를 표현할 수 있는 인터넷의 기사와 통계자료들도 참조하였다. II장에서는 EPIC 세대가 직면한 신앙의 현실을 다루기 위해 경험과 참여, 이미지와 공동체성의 부재를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의 예배현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III, IV장에서는 EPIC 세대 양육을 위한 대안으로 레너드 스윗의 EPIC 교회는 무엇인지 다룬다. IV장에서는 III장에서 주장한 레너드 스윗의 EPIC의 요소를 기반으로 EPIC 세대에 맞는 성금요일 예배를 기획하고 제안할 것이다. V장에서는 IV장에서 진행한 성금요일 기획예배에 전반적 평가와 보완점, 개선점 등을 리서치해 피드백 할 것이다. VI장에서는 결론으로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 평가하며 이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과 제언으로 본 연구를 마무리하려 한다.

제 II 장

비 EPIC적인 한국교회

EPIC 세대는 주로 미취학 아동을 둔 30~40대 젊은부부 가정으로 이루고 있는 세대이며, 이들에게는 다른 세대가 가지고 있지 않은 교육성과 생산성, 진취성과 연결성이라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에 현재 한국교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의 타계책이 되는 세대라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국교회는 교회의 교량의 역할을 감당하는 EPIC 세대의 부재와 관련이 있다. 교회가 점점 고령화 되어가고 있다. 교회가 고령화 된다는 것은 교회의 사역에 있어 역동성에도 영향을 미쳐 사역의 폭이 좁아질 뿐만 아니라 예배에 대한 반응력 역시 떨어지게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EPIC 세대의 잠재력인 진취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또 자녀의 출산이 현저하게 낮아짐에 따라 대두되고 있는 신앙의 다음세대의 부재 역시 EPIC 세대의 생산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예장(통합)의 경우 2018년도에 개최한 제 103회 총회에 보고된 2017년 기준 교세 통계를 보면 “교회학교 거의 모든 부서가 감소했다. 지난 10년 사이에 유년부가 38.7%, 초등부가 38.2%, 소년부가 46.4% 감소했다. 전체 초등학생은 평균 41.1%가 감소한 셈이다. 지난 10년 사이의 학령인구 감소율은 초등학생의 경우 25.6%인데, 초등학교 학생 수는 학령인구보다 15.5%정도 더 감소한 셈이다. 중고등학생의 경우도 10년 사이

34.7%감소하여서 학령인구 감소율 28.8%와 비교할 때 6% 가까이 더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교회학교 학생 수가 학령인구보다도 더 감소하는 이러한 현상은 심각한 다음 세대 신앙의 대 잇기 위기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⁴라고 분석했다. 이것은 세대 생산성의 주체가 되는 세대가 얼마나 견고하게 형성되었는지와 관계가 있으며, 더불어 신앙공동체 안에서 젊은 부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한국교회는 이전 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마주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생소한 단어가 아닌 ‘썬데이 크리스천’, ‘개독교’는 흔하게 들려오는 단어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단어들은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의 기독교가 가지는 인식과 그 입지를 잘 보여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문제의 1차적인 책임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기에 EPIC 세대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바르게 성경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기독교 교육적 잠재력이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더욱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한다. 과연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들의 영적 필요와 욕구에 적절히 반응하며 좀 더 효과적인 예배를 통해 신앙의 본질을 전달하는 사역에 충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이다. 물론 많은 교회들이 EPIC 세대의 중요성을 나름대로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그에 대응하는 교회의 적절한 반응은 없거나 미비한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혹은 오히려 교회의 모든 세대가운데 가장 영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EPIC 세대의 현주소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매주 접하는 한국 교회의 예배의 현주소를 분석해보자.

⁴ 박상진, “가정 중심의 신앙교육,” 두란노 (2019,5), 39.

이성적 예배

김순환은 예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배는 역사를 통해서 본질적인 것을 지키면서도 때로 그 형식상 발전과 변화의 과정을 겪어 왔다. 예배의 형식이나 스타일은 불변적이고 고정적인 것으로 선형적으로 존재하기보다는 해당 시대의 문화와 정서 및 상황에 따라 적응적 변용을 계속해 왔던 것이다. 이러한 발전적 과정을 지켜보면서 특정 시대와 특정 상황의 예배적 전통만이 옳다, 혹은 그르다고 범주적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나름대로의 배경적 원인들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그들 각자는 시대적 상황과 문화 아래에서 예배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의 결과이다.⁵

한국교회는 주로 이성과 이해를 강조하고 추구하는 예배의 형태이다.

종교개혁 이전의 예배가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로 가득한 것들에 반발하여 예배를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예배의 내용에 있어서 이성적으로 동의가 가능한 부분만을 채택했으며, 순서에 있어서도 회중을 이해시키는데 집중하였다. 그렇기에 종교개혁자들은 알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라틴어 성경을 자신들의 모국어로 번역하는 등 다양한 작업을 통해 이해라는 요소가 예배에 대한 은혜와 풍성함을 가져오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의 예배의 형태는 이해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예배 속에서 말씀만이 강조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한쪽에만 너무 치우쳤다는 것이다. 이것은 예배의 전체적인 불균형을 초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예배를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요소는 최소화하고 오로지 정해진 형식과 틀에 따라 드러지는 형식적인 예배로 획일화 되어갔다. 뿐만 아니라 개혁 초기 모든 회중이 이해를 바탕으로

⁵ 김순환, *21세기 예배론*, 32.

풍성한 예배를 만들어왔던 ‘이해’ 라는 장점이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정해진 구조와 형식 속에 드러지는 예배화 되어버림에 따라 풍성함마저도 사라지고 있는 형국이다. 오늘날 성도들은 이 예배의 요소와 예배의 순서의 위치가 예배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 지에 대해 이해와 뚜렷한 이유도 모른 채 매 주일 매번 반복되는 습관처럼 예배를 드리고 잘 짜여진 틀에서 순서를 실수없이 진행해 나가는 것이 잘 드러진 성공적인 예배로 여겨지고 있다. 다시 말해 오늘날 한국교회의 예배는 이성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경험과 이해라는 두 마리 토끼 모두를 놓쳐버린 모습이 되었다.

이러한 ‘이해’의 부재는 오히려 형식적이고 획일화된 형태로 나타났으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에 예배의 무게 중심이 있기 보다는 예배가 신자들을 관리하는 수단이나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외적 수단이 되었다. 또한 바른 이해가 없기에 단순히 개인의 감정적인 호소하는 예배로 흐르게 되었고 예배가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감사와 그에 따른 우리의 합당한 반응으로써의 경배보다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한 기복의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내가 축복을 소유하기 위한 필수적이고도 기본적인 요건을 예배로 인식함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치 공급자와 수요자의 관계처럼 딱딱해지고 메말라져 버림을 초래하였다. 또한 성도들은 예배의 모든 순서를 목회자에게 맡기고 예배를 구경만 하는 관람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그러다 보니 예배에 있어 설교의 비중이 커지고 강단의 위치는 높아졌으며 성도들이 경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성만찬의 요소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로만 하도록 한정 되어버렸다.

우리는 예배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경험은 어느 것 하나를 취사선택해야하는 요소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요소로 인식해야 한다. 왜냐하면

온전한 이해는 경험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성도들이 직접 예배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성적 이해만을 강조하다 보면 내가 왜 지금 이러한 예배의 순서를 하고 있는지는 이해하지 못한 채 복을 받기 위한 통로로써 인식하게 되고 주입식 예배는 오히려 형식적 예배로, 감정에만 호소하는 예배로 정형화되고 굳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EPIC 세대는 무언가를 소유하고 자신 안에 간직하는 것으로 만족하기보다는 보다 실제적인 경험을 중요시하는 세대이다. 자신의 만족이라는 요소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다면 자신의 재정을 투자해서라도 시간을 사기 원하고 그 시간을 통해 직접 만족함을 경험하고 싶어하는 세대이다. 또한 그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대가 EPIC 세대이다. 그렇기에 예배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간접적으로 전달받고 그 내용을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다른 사람이 정의내린 하나님이 아니라, 압복 강가에서 야곱과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고, 사자굴에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지켜 보호하셨던 다니엘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만나길 원하고 체험하길 원한다. EPIC 세대는 이러한 신앙적 경험에 대한 그들의 니즈(needs)가 매주 교회에 출석하여 자신이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채워지길 원한다. 김운용은 예배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예배는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 하시고,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성삼위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그분이 허락하시는 하늘의 신비와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예배는 하늘이 땅에 내려오고, 땅이 하늘에 잇대어지는 하늘의 신비입니다.⁶

⁶ 김운용, *예배, 하늘과 땅이 잇대어지는 신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5), 11.

하지만 오늘 한국교회는 체험은 신비적인 요소라 철저히 배제하며 간접적인 경험을 설교로 통해 전달하는 이성적인 예배의 모습을 고집하고 있는 현실이다.

수동적인 대리자로서의 예배

김순환은 예배는 청중이 아니라 회중이 되어야 함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청중이란 그야말로 ‘듣는 무리’를 말한다. 이 말은 라틴어의 ‘듣다’라는 의미의 *audire*에서 나온 반면 회중이라는 말은 ‘모이다’를 뜻하는 *gregare*에서 나온 말이다. 그래서 이 말은 ‘함께’를 뜻하는 접두어 *com(n)*과 더불어 ‘함께 모인 무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배에 참여하는 공동체는 개인의 참여나 결단과는 거리가 먼, 단순한 방관자와 같은 ‘듣는 무리’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함께 모여 예배의 공동 집례자(*co-celebrant*)가 되어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 책임적 연대를 새롭게 해야 하는 것이 예배다.⁷

그렇기에 예배는 목회자만이 단독으로 연출하거나 회중들은 하나님과 동일한 관객이 되어서 예배의 관람객으로 전락하여 예배를 평가하는 위치가 되어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회중과 설교자는 예배 전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역할이며 예배의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 교회의 예배는 회중을 철저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예배에서 상당부분을 목회자가 고정적으로 담당하며, 전체 예배 시간의 극히 일부만이 회중에게 열려있는데, 대표기도나 봉헌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그것 역시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는 향존직 즉 특정 소수만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진행된다. 또한 전체 회중이 예배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찬송가와

⁷ 김순환, *21세기 예배론*, 202.

교육문 정도 밖에는 없는 것이다.

그 결과 예배에 참여하는 대부분의 회중들은 예배에 있어 수동적인 참여자로 예배를 관람하는 현상으로 나타나며 상호작용이 아닌 일방적인 예배로 진행된다. 이러한 점을 김운용도 “예배는 언제나 회중들의 능동적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이 소홀히 되면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의 구경꾼으로 전락하게 된다. 앉아서 듣기만 하고 구경하기만 하는 피동적인 존재로 만드는 예배의 특성은 기독교 예배의 본질적인 측면과 위배된다.”⁸며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지적하고 있다. 그렇기에 참여의 요소가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할 예배이다.

오현철 역시 “한국교회는 설교사역에 있어 이런 회중의 적극적이고 공동체적 성격을 보다 수용하고 회중의 문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뿐 아니라 회중이 다양한 문화 환경 중 하나라는, 즉 설교환경이 된다는 인식을 아울러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⁹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의 예배의 성공은 톱니바퀴처럼 빈틈없이 짜임새있게 돌아가는 것에 목표를 둔다. 그렇기에 회중의 역할은 중요하지 않다. 소수의 기획자들이 세워놓은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유기적으로 진행이 되면 그것은 성공한 예배가 되며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 것이다. 회중의 반응과 의견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참여하는 시간이 아닌 목회자가 발견한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회중을 설득하는 과정이 되어버렸다. 그렇기에 때로는 설교의 내용이 회중의 삶과 너무나도 동떨어져서 공감과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설교자가 전달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를 내세워서 일방적으로 수용할

⁸ 김운용, *예배, 하늘과 땅이 잇대어지는 신비*, 39.

⁹ 오현철, *설교와 환경* (서울: 기쁜날, 2015), 40-1.

것을 강요하는 식의 설교가 되었다.

EPIC 세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로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권위를 거부하는 세대이다. 그렇기에 이들 세대에게 과거 권위를 통해 일방적인 수용만을 요구하는 형식의 설교와 예배는 오히려 EPIC 세대에게 거부감과 거리감을 초래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교회는 여전히 목회자 중심의 예배로, 설교자는 전달자의 위치에서 회중은 철저히 수동적인 위치에서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형태의 예배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문자적인 예배

주승중은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를 이야기 하며 “오늘날 우리 사회의 변화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커뮤니케이션 분야의 변화는 거의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쿠텐베크그가 인쇄기를 발명한 이후 지난 500년 동안 모든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은 인쇄된 지면, 즉 문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¹⁰고 설명한다. 즉 이 전까지의 주된 전달 체계는 문자 커뮤니케이션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인 모두가 영상이라는 매체에 길들여져 있고 유튜브라는 영상매체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세대이다. 과거 세대는 학교 수업이나 문제집, 참고서를 통해 학습하던 문자에 길들여진 세대였다라면 요즘 세대는 인터넷을 통한 강의가 훨씬 더 익숙한 세대이며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웹서칭, 유튜브와 같은 영상 매체를 통해 학습하는 것에 더 큰 매력을 느끼는 세대이다. 주승중은 문자 시대 이후의 회중을 다음과 같은 말로 나타낸다.

¹⁰ 주승중, *성경적 설교의 원리와 실제* (서울: 예배와설교아카데미, 2006), 472.

이 세대가 ‘시각적인 세대(Visual generation)’ 라는 것이다. TV나 영상 매체는 추상적인 이론이나 논리적으로 발전된 개념을 전달하지 않는다. TV나 멀티미디어 등 영상 매체는 기본적으로 시각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할 때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전달한다. 한마디로 영상 매체는 개념이 아닌 그림(Image)으로 메시지를 전달한다.¹¹

주승중은 이미지를 통해 설교가 전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실 이것은 설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배에도 요구되는 사항이다. 교회는 회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술적 자원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어떤 개념의 전달로써의 예배가 아니라 예배 자체가 그려지고 이미지화 되며 입체적인 형태로 전달되고자 노력하는 모습으로써의 변화가 필요한 시대이다. 과거 세대에는 구현할 수 없던 많은 과학 기술적 진보가 이루어져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선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한국교회의 예배는 여전히 문자적이고 직선적 전달방식을 취하고 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룩한 시간이라는 틀 안에 갇혀 아직도 설교 중에 영상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는 정서의 교회도 있으며, 구두언어로만 설교를 전달하는 목회자도 적지 않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의 전통이 깊은 교회일수록 더 강하게 나타난다. 특별히 영상매체에 길들여진 청년 세대나 다음세대의 설교에서도 영상의 활용도가 전혀 없는 경우도 다반사다. 화면은 주로 목회자 모습을 송출하는데 사용되거나 혹은 설교 중에 나오는 본문을 보여주는 데 사용된다. 영상이라는 매체 역시 문자적 예배를 위해 활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말로만 전달되는 설교는 EPIC 세대에게는 답답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뿐 아니라 전달력 또한 현저히 떨어진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시험을

¹¹ Ibid., 473.

준비하기 위해 책을 보며서 암기를 하더라도 당일 시험에 잊어버리는 것들이 있는데
 순순하게 청각에만 의존하여 전달하는 설교는 더 할 것이다. 설교의 전달방식이
 새롭게 되고 다양한 모습이 요청되는 시대라는 것이다. 성경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서는 당시 신약시대에 영상화 할 수 있는 매체가 한계적이었기에 비유라는
 언어의 장치를 통해 회중에게 이미지화 시켜서 전달하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맞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단일 감각이 예배
 전체를 이끌어가는 전달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공동체성이 결여된 예배

교회의 본래 뜻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기쁨과 감격을 나누는 무리임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회중이란 “함께 모인 무리” 라는 의미로 예배를 참여하며 함께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는 공동체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에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드리는
 예배는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한 지체인
 성도와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기에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심점을 가지고 성도는 주님의 몸 된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공동 목표를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또한 나 자신의 정체성 역시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타인과의 관계를 통하여 나의 장점과 단점을 발견하게 되고, 타인과의 교류를
 통하여 나의 정체성이 세워지게 되며, 타인을 통해 나의 가치가 꽃 피우게 된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상대를 통하여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레너드 스윗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타자이신 그 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타인들” - 믿음의 권속 밖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알게 된다. 우리는 타인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타자이신 그분과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으로써 하나님께 간다.”¹² 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현재 한국교회의 예배는 공동체적 성향의 예배보다는 개인이 드리는 개인적인 예배의 성향을 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배의 순서가운데 공동체가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는 순서는 보이지 않고 성도 간의 교제가 있더라도 단순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와 같은 형식적인 순서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운용은 이러한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에 대해 “성찬은 하나님의 자기 주심에 대한 감사의 예전이며, 아남네시스(기억)의 사건이며 하나 됨을 위한 성도의 교제이다. 문제는 예배 가운데서 성찬을 축소, 혹은 외면함으로써 이러한 기쁨과 감사의 예전과 그 중요한 축복을 놓치고 있다는 점”¹³을 언급하며 자각을 촉구한다.

그나마 적은 규모의 교회의 경우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며 성도간의 공동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중대형 교회의 경우 지금 내 옆에 앉은 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며 지금 내 옆에서 식사하는 성도가 누구인지 관심조차 없는 형국이다. 스윗도 “교회사에 일어난 분열의 상당수는 성찬 식탁에 대한 이해와 관련이 깊다.”¹⁴고 이야기하며 신학 차원에서의 식탁 만을 강조하고 공동체 차원의 식탁을 경시함을 꼬집었다. 하물며 EPIC 세대의 예배는 더 참담하다. 많은 교회들은 예배당 뒤편에 자모실을 배치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안일한 생각에

¹² Leonard Sweet, 관계의 영성, 윤종석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7), 204.

¹³ 김운용, 예배, 하늘과 땅이 잇대어지는 신비, 438.

¹⁴ Leonard Sweet, 테이블에서 테이블로, 장택수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15), 119

빠져있는 동안 그들은 자녀들의 뛰어노는 소리와 자녀의 양육이라는 현실과 직면해 개인의 예배마저 위태로운 상황에 방치되어 있는 현실이다. 필자 역시 자모실에서 예배를 참여해 본 결과 전혀 설교에 집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모실 안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설교에 내용을 듣는 것이 거의 불가능 함을 느꼈다.

2018년 4월 9일에 기독교연합신문의 기사를 보게 되면 한국교회의 자모실의 유형을 몇 가지로 분석하여 기사화하였다. 첫 번째로 규모가 작은 교회로 자모실이 구비되지 않은 환경, 두 번째로 자모실이 예배와 동떨어진 환경으로 청각적으로 예배의 집중이 어려운 환경, 세 번째로 별도의 수유실과 편의시설을 갖춘 환경, 네 번째로 아이와 엄마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자모실의 형태를 이야기하며 “네 가지 경우를 종합해 볼 때 공통점은 아이와 함께하는 예배는 집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¹⁵라는 결론을 내린다. 실제로 아이들의 양육과 그 안에서의 발생하는 소음, 다양한 돌발 상황으로 전혀 예배에 집중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EPIC 세대들은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 기간은 출산 이후 자녀가 취학할 때까지 최소 8년~10년 이상의 시간이 양육의 기간으로 소요된다. 그리고 뚜렷한 대안이 없는 교회의 경우 EPIC 세대의 기본적인 영적공급은 적게는 8년 이상, 두 자녀의 경우 10년 이상의 영적인 공급의 단절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또한 예배 가운데 공동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개인의 신앙적 공급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인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 한국의 많은 개교회들은 EPIC 세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동체적 콘텐츠를 구비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결혼 전에는

¹⁵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6254> (2020년 2월 20일 접속).

청년부라는 공동체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영적 콘텐츠(예배, 수련회, 성경공부, 목장모임, 제자훈련 등)를 제공받는 영적 공급이 유지 되었다고 한다면 결혼 이후 장년으로 옮겨지게 되면 교회의 주된 포커스와 관심의 대상이 EPIC 세대들이 아닌 기존의 장년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현실과 직면하게 된다.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장년 성경공부의 시간대라고 할 수 있다. 주로 교회들의 장년성경공부는 구역부, 권사회 모임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그 시간대 역시 평일 주간에 주로 이뤄지게 된다. 이것은 노동력을 가지고 있고 직장이라는 사회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EPIC 세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EPIC 세대는 예배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의 다양한 활동에서도 따로 분리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더 느낄수 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현실이다

제 III 장

EPIC 세대를 위한 대안: 레너드 스윗의 EPIC이론을 중심으로

EPIC 세대는 현재 한국교회가 직면한 문제들 타개할 잠재력을 소유한 세대인 동시에 한국 교회의 예배의 현주소를 돌아보게 하는 세대이다. 현재 그들에게 공급되고 있는 한국교회의 예배는 개개인의 경험적 요소가 부재한 예배, 수동적인 존재인 대리자로서 참여가 제한된 예배, 오로지 청각이라는 단일감각에 의존하는 문자적 예배, 공동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의 부재로 개인적인 예배로 경험과 참여, 이미지, 공동체적 요소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 상황을 직시하고 포스트모던의 시대에 새로운 미래 교회의 대안을 제시하는 학자가 바로 레너드 스윗이다. 그는 드루신학대학원(Drew Theological School)의 석좌 교수였으며 동시에 미국 조지 폭스(George Fox)대학교의 명예 객원교수로 미래형 목회를 시도하고 있는 교회에 신학적 이론을 제시하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주목 받는 교회 미래 학자이다. 그는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교회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21세기의 교회는 예산과 건물로 성공 여부를 측정해서는 안되며, 1세기의 교회처럼 창조성과 상상력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1세기의 교회는 1세기의 교회처럼 은행 잔고나 섬기는 이의 노동력이 아닌 두뇌와 창조성에 따라 성공 여부를 측정해야 한다. 교회는 수입, 갈망, 결과에 기초한 소비문화 속에서 인생의 ‘최고의 것’ 과 ‘최상의 것’ 을 신실하게 제공하며 무상으로 분배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문화를 만들어 내야 한다. 교회 내에서 창조적인 생각이 예산액을 대신해 성장의 척도로 서지 않는다면, 교회는 새로운 문화 속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¹⁶

오늘날 교회를 압도하고 삼킬 듯이 다가온 포스트모던의 문화의 물결에서 교회는 어떻게 창조적인 모델로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성공적으로 어필할 것인가의 대안으로 레너드 스윗은 ‘EPIC 모델’을 소개한다. “이러한 포스트모더니티를 나는 EPIC 문화라고 부른다. 그것은 경험(Experiential), 참여(Participatory), 이미지(Image-driven), 관계(Connected) 중심의 문화를 의미한다.”¹⁷ 그가 주장하는 EPIC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자.

경험(Experience): 이성에서 경험으로

스윗은 “포스트모던인들은 경험에 늘 개방적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경험적 요소를 과소 평가하지 않는다. 그들은 인생의 경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¹⁸라고 말한다. 즉 다시말해 개인의 실제적인 경험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며 자신의 삶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경험적 요소를 더 많이 경험하고 소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가 말하듯이 “현대인들은 삶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한다. 포스트모던인들은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싶어한다. 특별히 스스로 경험하고 싶어한다. 포스트모던인들은 경험할 수 없는 곳에서는 살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들은 경험이

¹⁶ Leonard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김영래 역 (서울: 좋은 씨앗, 2002), 22.

¹⁷ Ibid., 62.

¹⁸ Ibid., 65.

폭발하는 환경 속에서 살고 싶어한다.”¹⁹ 다시 말해 그들에게 존재하는 다양한 삶의 물음에 대한 직접적으로 그 삶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타인을 통해 전달받는 해답이 아닌 본인 스스로의 해답을 찾길 원한다. 그렇기에 그들은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환경을 갈망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회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레너드 스윗은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경험에 대해 “그들은 정확한 정보를 원하지 않는다. 그 정보가 경험으로 포장되어 있기를 바란다. 에듀테인먼트를 원하는 것이다. 그 경험은 극단적일수록 좋다.”²⁰라고 분석한다. 이러한 경험적 욕구는 그들의 사회 문화적인 특성에서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하나님에 대해 그저 입으로만 고백하는 신앙과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함을 통해 직접적인 체험을 가지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포스트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그저 지식적인 차원에서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기 보다는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그들에게 있다. 그래서 스윗은 “포스트모던 문화는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 즉 다른 사람(교회 전통, 교회사역자, 교회제도)이 정의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곳에서는 누구나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이 야곱이 된다. 만남, 바로 경험이 메시지가 된다.”²¹라고 주장한다.

다른 사람이 정의 내린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나 직접 성경 속 이스라엘이

¹⁹ Ibid., 67.

²⁰ Ibid.

²¹ Ibid., 78.

되고 싶어하고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만남이 되길 원하며 그러한 경험들이 그들에게는 자신들만의 특별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성에서 경험으로 변화되어지는 세계관의 추세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던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삶에 이르는 모든 방식을 느끼는 세대이기에 이전에 갖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길 원하고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개인과 사회를 변화시키길 원한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예배로써 공급되어진다.

그렇기에 포스트모던의 시대에 예배가 추구하며 나아갈 방향은 총체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스윗은 “총체적인 경험은(total experience)은 포스트모던 예배에 있어서(목회자들이 추구해야 할) 새로운 표어이다. 새로운 설교 세계의 설교가들은 설교를 쓰지 않는다. 그들은 전적인 경험을 창조해 낸다. 그리고 이들은 Shekhinah(신의 임재를 뜻하는 히브리어) 경험들은 완전한 감각-청각, 시각, 촉각, 미각, 후각-의 무장을 한데 묶어 진, 선, 미의 천상의 빛에 뒤덮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의 찬란한 광채 속으로 이끈다.”²²라고 말한다. 즉 설교가들은 오직 설교를 통해서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도 풍부한 경험과 감각들을 활용하여 총체적인 경험을 생산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이제 과거와 같이 예배 시간에 자신의 자리에 앉아 수동적으로 예배를 참여하며 보고 듣고 아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타인이 아닌 본인이 직접적으로 체험하고자 하는 욕구가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것이 구현되기는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라고

²² Ibid., 78-79.

해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

스윗은 “이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이 ‘이치에 맞아야 하는’ 계몽주의 문화와는 달리 포스트모던인들은 신비스러움을 즐긴다.”²³고 말한다. 새로운 시대속에서 살아가는 포스트모던인들은 합리적인 이성애 호소하는 예배에 별다른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성보다 경험이 가장 가치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하며,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인생의 가치를 축적하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재정, 희생까지도 감수하는 사회가 포스트모던의 사회이다.

하지만 스윗은 경험이라는 요소를 생각할 때 “경험은 중독될 뿐만 아니라 우상이 될 수도 있다.”²⁴고 이야기 한다. 마치 현대인들의 맘몬이라는 재물을 우상화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경험이 재물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그렇기에 스윗은 “포스트모던적인 상황은 이성보다 경험을 중요시한다. 그러나 그 상황에 ” 예 “라고 대답한다고 해서 그 상황 자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는 뜻은 아니다.”²⁵고 말하며 비판적 수용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바른 분별력이 우리에게 더욱 요구되는 시대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교회는 오랜 시간의 검증을 통해 세워진 전통과 성경, 그리고 기독교 진리라는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단순히 정보적 차원이 아닌 실재와 접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대에 맞는 성경적인 경험을 제공할 사명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스윗은 “교회는 유행이 아닌 진리로 문화에 영향을

²³ Ibid.

²⁴ Ibid., 81.

²⁵ Ibid., 82.

끼친다. 교회가 ‘유행’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치명적인 병, 즉 이 재난은 ‘유행병’이라고 불린다. 문제는 크리스천들이 유행보다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유행병’으로 인해 세상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대부분을 잘못 진단하는 데 있다.”²⁶라고 주장한다. 그렇기에 교회가 이러한 기준과 분별력이 상실해 버린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닌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는 한순간의 유행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교회는 더욱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며 그것을 시대 속에 지속성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정신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이다.

참여(Participation): 대리에서 참여로

스윗은 “포스트모던인들은 상호 의존적이며 상호 작용하는 기질 안에서 생각하고 살아간다. 그들은 관찰하는 자로서 참여자만큼이나 세상을 인지하고 이해하며 세상과 함께 상호작용한다.”²⁷고 말한다. 다시 말해 대리자가 아닌 상호작용의 위치에 있는 참여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장소는 사이버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과 같이 일방적인 소통의 방식이었다면 오늘날은 1:1의 커뮤니케이션을 넘어 수많은 사람들과 동시다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시대이다. 그렇기에 라디오는 “보이는 라디오”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시청자와 소통하며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진화되고 있으며 이제는 공중파로 대표되는 방송 이외에도 스스로가 하나의 방송을 운영하는 개인 방송국의 모습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²⁶ Ibid., 83.

²⁷ Ibid., 94.

낯선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스윗은 “오늘날 포스트모던인들이 추구하는 상호 작용은 모두 가라오케와 같은 기회를 부여하는 특징을 가진다. 그들은 가라오케 방식이 아니면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²⁸라고 말한다. 즉 이러한 시대적 경향은 서로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존재가 아닌 자신의 생각과 개성을 첨가해 창출해내고자 한다. 마치 레너드 스윗의 표현을 빌리면 “손님이 직접 재료를 고르고 섞어서 음식을 만드는 곳이 될 것이다.”²⁹ 처럼 말이다.

그렇기에 오늘날 문화는 지극히 참여적인 문화인 동시에 직접 선택하는 문화인 것이다. 스윗은 “포스트모던인들은 상호 작용할 수 없는 것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무엇을 소유하거나 보고 즐기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만족하지 않는다. 이제 그러한 것들을 현실로 만들거나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일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 사람들은 어떤 것이든 그 생산 과정에 참여하기를 원한다.”³⁰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포스트모던인들은 자신이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가 되길 원한다는 것이다.

레너드 스윗은 대리문화(representative culture)와 참여문화(participatory culture)를 다음과 같이 비교한다.

대리 문화는 다음과 같은 신념에 기초한다.

- 사람들은 통제 받고, 누군가가 자신들을 위해 결정 내려 주기를 원하고 요구한다.
- 리더십의 과제는 지침과 규정을 집행하는 것이다.

²⁸ Ibid., 98.

²⁹ Ibid.

³⁰ Ibid., 101-2.

- 사람들은 보상받을 수 있는 행동만 한다.
- 사람들은 사회나 조직에 봉사하는 일에 개인의 자유를 사용하지 않는다. 참여 문화는 이와 상반된 신념에 기초한다.
- 사람들은 스스로 결정 내리기를 원하며 선택의 여지를 가지고 싶어한다.
- 리더십이란 다른 사람들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자신 있고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 사람들은 공공의 선을 위해 희생한다.
- 인간 조직은 자발적이며, 사람들은 자신의 자원과 시간을 현명하게 투자할 수 있다.³¹

이러한 점은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우리의 일상적 삶의 부분 뿐만 아니라 의학이나 음악, 교육, 정치, 경제, 도서 등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도 나타나며 종교적인 분야 즉 우리의 예배에서도 이러한 포스트모던의 특징이 동일하게 드러난다. 스윗은 “그리스도의 지체는 참여하는 공동체다. 회중은 성만찬뿐만 아니라 행동이 수반되는 교회 활동에서도 ‘참여자’가 되어야 한다. 이제 ‘직업 목사’와 의자에 앉아 있는 평신도란 있을 수 없다. 오직 평신도 지도자들을 움직이게 하고 그들이 직접 목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목사만이 존재한다.”³²고 주장한다. 즉 다시 말해 목회와 예배는 목회자만이 주체가 돼서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공동체의 회중들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참여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스윗은 “포스트모던 인들은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 상호 작용하고, 몰입할 수 있으며, ‘정면으로’ 부딪히는 참여를 원한다. 오순절 교인들은 ‘움직이는 예배’를 드린다. 움직이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춤, 이야기,

³¹ Ibid., 100.

³² Ibid., 115.

소리, 접촉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함을 촉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움직이는 예배는 상호 작용하는 예식을 통해 사람들의 기대를 참여로 변형시킨다.”³³고 말하며 신전통 교인들과 오순절 교인들의 참여를 불러일으키며 서로 하나 됨을 누렸던 오순절 교회를 예로 든다.

한국 교회가 나아갈 예배의 방향성에 있어서도 포스트모던이라는 시대적 배경임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시대의 적용이 오늘날의 동일한 해답이라 생각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시대는 계속적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속도는 이전 과거 시대보다 훨씬 더 빠른 변화의 시대와 직면하고 있음을 깨닫고 교회 공동체 및 예배 속에서의 상호작용적 요소의 중요성을 깨닫고 참여라는 요소가 온전히 발현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 설교에 있어서도 스윗은 “회중들과 마이크를 공유하면서 함께 설교를 만들어 나가라. 아니면 회중들로 하여금 당신이 시작한 문장을 마무리 하도록 하라. 그들이 문장을 마무리 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말이다.”³⁴라고 말하며 상호 작용적 설교를 통한 회중의 참여와 소통을 주장한다.

이미지(Image): 문자에서 이미지로

레너스 스윗은 오늘날 문화에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포스트모던 문화는 이미지를 추구한다. 현대 세계는 언어에 근거를 두었다. 신학자들은 이성과 질서를 종교의 핵심에 놓으면서 지적인 신앙을 창조하려고 했다. 신비와 은유는 지나치게 불분명하고, 모호하며, 비논리적이라고 여기고 배제했다. 이야기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미디어에게 빼앗겨버린 교회는 이제

³³ Ibid., 115.

³⁴ Ibid., 117.

이야기와 은유가 영적 핵심에 놓인 세계로 발을 내딛고 있다.³⁵

즉 다시금 우리의 예배가운데 이런 이야기적 요소, 은유적 요소의 활용을 통해 성경 이야기의 전달자로 역할을 능력있게 감당해야할 시대적 요구에 교회는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그는 “명제는 포스트모던인들의 귀에서 사라져가지만, 대신 그들은 은유를 듣게 될 것이다. 이미지를 보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³⁶라고 이야기하며 기존의 방식의 전달력은 미디어가 주도하는 전달력에 비할 수 없고 이것은 다시금 고유의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재인식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코카콜라나 스타벅스가 그러한 것처럼 스윗은 “최대의 상표가 ‘교유한 이야기들’ 이고, 소유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이 이미지와 이야기들이라면 기독교는 가장 거대한 상표가 되어야 한다. 헐리우드가 아닌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이미지 공장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이미지, 사람들을 관계 속으로 끌어들이는 이미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³⁷이라고 보았다. 즉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최고의 브랜드 이미지가 되어야 하며 이런 최고의 이미지를 통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계성 안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 교회는 구속사의 이야기를 율법으로써 교리로써만 전달했지 이미지로 전달하지 못했고 이것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잃버린듯 하다. 물론 스윗이 경고한대로 “무언가를 은유로 인식하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의 진리에

³⁵ Ibid., 133.

³⁶ Ibid., 134.

³⁷ Ibid.

접근할 때”³⁸의 위험성도 있고 “이미지의 장점이면서 약점인 모호함”³⁹이라는 위험도 있다. 물론 이러한 불안요소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은유는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 스윗이 평가한 대로 “교회는 새로운 영상 테크놀로지 시대 한가운데 살면서도 인쇄에 붙들린 채로 남아 있다. 그 때문에 시(詩)로 돌아가려는 거대한 회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⁴⁰ 때문이다.

그렇기에 그는 “이미지 추구는 포스트모던 문화뿐만 아니라 인간 정신 자체가 지니는 특별한 활동이다. 인간의 정신은 은유로 이루어져 있다. 은유는 실재를 창조한다. 은유는 사고와 행동을 구성한다. 은유는 언어 이상의 것”⁴¹으로 보았으며 우리는 이러한 은유를 우리의 예배에 접목시키고 우리의 신앙과 연결시킬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은유를 그리스도에게 연결시키고 삶을 변화시킨다.”⁴²고 주장한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이미지 언어와 은유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도 은유라는 장치를 사용하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포스트모던의 영성은 이미지에 기초하기에 더욱 그러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스윗이 지적한대로 “예배는 스타일이 아닌 영(spirit)의 문제”⁴³이기에 아무리 최신의 트렌드와 기술이 뒷받침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예배를 이끌어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³⁸ Ibid., 138.

³⁹ Ibid.

⁴⁰ Ibid., 139.

⁴¹ Ibid., 140.

⁴² Ibid.

⁴³ Ibid., 142.

간구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스윗은 “EPIC 교회가 당면한 가장 큰 도전 가운데 하나는 회중들로 하여금 대중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미지의 지배를 받는 건전한 이미지를 만들도록 돕는 것이다.”⁴⁴라는 대안을 제시한다. 인풋(INPUT)이 있으면 반드시 아웃풋(OUTPUT)이 있다. 사람의 생각에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에 따라 출력되는 모습은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교회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가치를 전달해야 하고 그것은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결과로 나타나야 한다. 스윗은 “말은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다. 말은 몸을 쓰는 것 이상의 해를 끼칠 수 있다. 나쁜 말은 영혼을 파괴시킬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미지가 기본적인 의사 소통 매체가 되어 글을 대신하고 있다. 말이 삶을 더럽힐 수 있다면, 이미지는 우리를 더럽히고 타락시키는데 있어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진다.”⁴⁵ 고 인풋의 중요성을 피력한다. 다시 말해 이미지는 양날의 검과 같이 선용된다면 좋은 영향력을 전달하는 귀한 도구가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이 있기에 교회들이 사람의 말과 글로는 전달할 수 없고 다 표현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다양한 이미지와 은유라는 장치를 통해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람들 마음과 생각을 채워나갈 때 더 좋은 신앙적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관계(Connection): 개인에서 공동체로

레너드 스윗은 “웹 세계에서 즐겨 사용되는 두 개의 단어는

⁴⁴ Ibid., 147.

⁴⁵ Ibid., 146.

‘연결(connected)’ 과 ‘공동체(community)’ 다. 실제로 그 두 단어는 ‘연결공동체(connexity)’ 라는 새로운 단어로 하나가 되었다.”⁴⁶ 고 했다. 이는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어 사유화에 가치를 두었던 근대 사회에서 공동체를 통한 공유의 중요성을 발견한 포스트모던 시대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이제 그들은 기존의 제도화된 종교에 무조건적 복종하는 것을 원치 않고 오히려 개인적이면서도 공동체적인 경험을 추구한다. 그리고 그 경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거룩한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스윗은 “포스트모던인들은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동시에 공동체적인 경험을 하고 싶어한다.”⁴⁷라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가 말하듯 “포스트모던의 핵심은 신학적으로 읽어낼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나/우리 또는 공동체 내에서 개인의 경험이 그것이다.”⁴⁸ 다시 말해 개인의 사유물이 아니다. 공동체 안에서 살아있는 개인의 경험을 추구하는 동시에 공동체적 경험의 결과 라는 것이다. 때문에 스윗은 “이웃과 도덕, 그리고 영적인 가치의 연결 구조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싶어한다. EPIC에서 C가 ‘공동체(community)’ 보다는 오히려 ‘관계성(con-nectedness)’ 을 의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⁴⁹라고 한 것이다.

그렇기에 포스트모던의 사람들은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라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스윗의 주장대로 “포스트모던의 ‘나’ 는 ‘존재’ 하기 위해 ‘우리’ 를

⁴⁶ Ibid., 163.

⁴⁷ Ibid., 166.

⁴⁸ Ibid., 169.

⁴⁹ Ibid.

필요”⁵⁰로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동체의 갈망에 응답하려면 오늘날의 EPIC교회는 다음 네 가지 측면의 목회를 향상시켜야 한다.

첫째는 관계성이다. 스윗은 “이 관계성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의 핵심이다.”⁵¹ 라고 말한다. 그는 “교회는 ‘관계’ 과 ‘관계성’ 의 개념을 포스트모던 상황에 적합하도록 새롭게 발전시켜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계의 범위가 아니라 차이를 만들어내는 관계의 다양성이다. 풍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삶과 접촉이 많은 삶 또는 네트워크가 잘 되어 있는 삶 간의 차이를 인식해야 한다.” 고 말하며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할 대상이다”⁵²라고 주장한다. 즉 포스트모던 시대의 교회는 관계를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으며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스윗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답을 찾고자 한다. “예수님의 목회에는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었다. 설교, 가르침, 치유가 그것이다. 도덕적, 영적 변화가 공동체나 개인에게 일어나길 원한다면 목회자는 치유의 역할을 향상시키고, 설교나 가르침에 들이는 노력만큼 치유의 능력을 갈고 닦아야 한다. 또한 목회를 구성하는 이들 세 가지 요소는 온라인 상에서 전달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⁵³는 것이다. 그렇기에 목회자는 개인적 차원에서 스스로가 치유의 역할을 향상시키며, 기존에 할애하던 설교나 가르침의 노력만큼 혹은 그 이상을 치유의 능력을 위해 투자해야 한다. 또 설교, 가르침, 치유라는 목회의 3요소가 전달될 수 있도록 빈약한 창조성을

⁵⁰ Ibid., 170.

⁵¹ Ibid., 172.

⁵² Ibid., 173.

⁵³ Ibid., 173-74.

극복해야 한다.

둘째는 분산과 복합성이다. 교회는 분산되는 동시에 복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배의 분산이란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여 드리는 예배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순간이 되는 동시에 예배를 통하여 교회 전체가 통합되면서도 각자의 방법으로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이다.

셋째는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다. 스윗은 스토리텔링이야말로 “공동체를 창조해내는 힘이다. 경험을 이야기로 풀어내는 능력은 철저하게 종교적인 문제다.”⁵⁴라고 이야기한다. 리는 한국인으로 태어나 역사 시간을 통해 수많은 민족적 이야기를 듣게 된다. 쉬운 예로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대한민국이라는 민족적 공동체의 정체성이 형성된다. 즉 공동체를 창조하는 힘이 이야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신앙공동체 안에서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미지(image)’라고 할 수 있다. 스윗이 말하는 이미지는 ”성경 속에서 떡과 포도주처럼 이땅에서 맛보고, 만지고, 보고, 냄새 맡고, 들을 수 있는 이미지로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다. 포스트모던인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맛보고, 만지고, 듣고, 냄새 맡고, 보기를 원한다.”⁵⁵는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키워드로 이미지를 생각한다.

넷째는 섬김과 사회 개혁이다. 예배라는 단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배인 동시에 타인에 대한 섬김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친히 사랑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모습을 본받아 타인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최상의

⁵⁴ Ibid., 177.

⁵⁵ Ibid., 179.

규칙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포스트 모던이라는 새로운 문화의 범람 속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과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EPIC의 모델을 통해 살펴보았다. EPIC은 과거의 전통과 완전한 단절이 아니다. 전통과 개인을 연결시켜주고, 그들이 직접 예배에 참여하게 하며,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이미지화시켜 전달해 줌으로써 다른 사람의 경험이 아닌 개인의 경험을 창조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제 IV 장

EPIC의 요소를 기반한 EPIC 성금요일 예배: 테네브레 예전

교회의 절기에 있어서 교회력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운용은 “교회력은 그리스도의 신비 전체를 펼쳐보이는 장이다.”⁵⁶라고 언급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일정한 주기에 따라 주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사역을 기념하며 회상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는 “교회력은 크게 주 단위로 진행되는 주간 주기(weekly cycle)와 1년 단위로 진행되는 연 주기(annual cycle)로 구분된다. 전자는 주로 주일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며, 후자는 성탄절 절기(Christmas Cycle)와 부활절 절기(Easter Cycle)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구조를 취한다.”⁵⁷고 말한다. 즉, 연 주기는 성탄절과 부활절이라는 가장 중요한 두 절기를 중심으로 이 두 절기 앞에 준비를 위한 다른 절기들이 배치되고 그 사이에 일반 절기들이 배치된다.

이러한 주기를 성탄절을 중심으로 한 ‘빛의 주기’, 부활절을 중심으로 한 ‘생명의 주기’로 부르는데 그만큼 교회의 절기의 핵심은 부활절과 성탄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별히 ‘생명의 주기’인 부활절 절기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⁵⁶ 김운용, *예배, 하늘과 땅이 잇대어지는 신비*, 349.

⁵⁷ Ibid.

요소가 함께 조명되어야 한다. 고난주간 금요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절정과 죽음을 기점으로 슬픔은 최고조에 이르고 드디어 부활절에 그 모든 슬픔이 승리와 경축으로 바뀌기에 앞서 행해지는 성금요일 예식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김운용은 “빛의 주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면 생명의 주기는 그 분이 오신 목적을 상기시킨다.”⁵⁸고 설명한다. 즉,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시고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푸신 그 놀라운 구속사역을 기억하는 절기이다. 그리고 그 의미가 온전히 전달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성금요일 예배의 예식이 얼마나 잘 전달되는지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EPIC의 요소를 기반으로 한 예배야말로 회중들에게 그 의미를 효과적으로 주님의 고난을 잘 전달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오랜 기독교 전통의 예식에 EPIC의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현대적인 감각을 살리게 되면 EPIC 세대들이 더 예배가운데 참여자로서, 또 예배를 통해 주님의 고난을 문자가 아닌 이미지로 그려가면서 예배할 수 있고, 공동체의 연결성을 확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며 경험하는 예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그리고 이 예배는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부활의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예식이 된다고 확신한다.

⁵⁸ Ibid., 351.

테네브레 예전이란?

‘테네브레’란 라틴어로 ‘어둠’이란 뜻으로 교회 전통에 따라 고난주간에 드리는 예배형식이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 온 세상이 어둠에 덮힌 것을 의미하여 어둠 속에서 예배한다. 전통적으로는 성 목요일에서 성 토요일까지 3일간의 조과와 찬과를 가리킨다. 이것은 초기 중세 이후 1955년까지는 전날 밤으로 앞당겨서 행해졌기 때문에 어두운 조과(matutinum tenebrarum) 등으로 불려 왔다. 산 모양의 촛대에 13개나 15개의 양초를 켜놓고, 시편창이 끝날 때마다 양쪽 끝에서부터 차례로 끄고, 마지막 1개를 제단 뒤에 감추었는데, 이것은 제자들의 탈락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했었다.⁵⁹

단, 본 교회에서 진행한 테네브레 예전은 시편창 대신 성금요일 당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말씀하신 복음서에 등장하는 가상 칠언을 중심으로 말씀을 봉독하며 7개의 초를 소화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기획 의도 및 목적

이 예배의 목적은 EPIC적 요소를 통해 성금요일에 드리는 예배의 의미가 회중에게 잘 전달되고자 함에 있으며 구체적으로 4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EPIC 세대가 직접 함께 예배를 만들어가며 직접적인 참여자로서 예배를 함께 이끌어가는 것이다. 과거 수동적인 참여자로서 예배에 동참하였다면 이번 성금요일 테네브레 예전을 통하여 예배에 모인 회중이 직접 예전의 일부를 담당하고 예배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목회자가 만들어가는 예배가 아닌 목회자와 회중이 함께 만들어가고 참여하는 예배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둘째, 다양한 이미지와 다감각의 요소를 통해 문자적 전달이 아니라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이라는 다양한 오감을 다 사용하여 예배를 이미지화 하는

⁵⁹ <https://terms.naver.com/>. (2020년 2월 4일 접속).

것이다. 청각이라는 감각을 주로 의존하던 기존의 평면적인 예배의 이미지가 아닌 좀 더 입체적이고 다각적인 감각의 예배를 통해 회중회중이 주님의 고난을 더 깊이 경험하게 하는 것에 있다.

셋째, 모인 회중들이 고난주간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신앙의 공동체임을 인식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젊은 부부 세대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를 연결시킴을 통해 구성원으로써의 정체성을 세워나가는 것 뿐만 아니라 현대적인 감각과 더불어 전통적 예배가 주는 깊은 묵상과 은혜를 개인의 신앙과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넷째, 위의 3가지 목적의 달성함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타인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닌 회중 개개인의 직접적인 경험이 되는 예배가 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큰 골격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테네브레 예전의 형식 가져옴으로써 전통의 유산을 폭넓게 사용하여 회중과 전통을 연결하고 뿐만 아니라 현대의 다양한 시각적 이미지를 사용함으로써 전통 예전이 주는 무게감과 현대적인 감각이 공존하는 예배로 기획하였다. 또한 시각화 된 이미지들과 진행되는 예전들에 대해 회중에게 첨부된 설명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고난을 회상하며 기념할 수 있도록 그 안에 담긴 의미들으로써 회중들을 보다 깊은 묵상의 자리로 이끌어주게 된다. 또한 테네브레 예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인 촛불 소화, 가상칠언의 봉독, 교독적인 기도, 징의 울림과 성찬의 예식 등을 통해 회중은 수동적인 입장에서 참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배에 참여하고 함께 예식을 만들어가는 능동적인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기획했다. 또한 구약에서의 속죄의 메타포인 물두멍과 신약의 속죄의 메타포인 십자가를 활용하여 단순히 이것이 과거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닌 오늘날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연속성있게 경험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구속사임을 깨닫는 기회를 주고자 하였다.

EPIC이 담긴 테네브레(Tenebrae) 예전을 위한 준비

성금요일 테네브레 예전이 보다 회중에게 깊은 의미로 가다오기 위해서는 40일간의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는가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무런 신앙적 묵상없이 성금요일을 맞이하는 것과 사순절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과 40일의 여정을 걸어간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기에 사순절을 보다 뜻깊게 보낼 수 있도록 ‘사순절, 40일간의 여정’이라는 주제로 매일 카드묵상이라는 이미지를 제작하여 전달하였다. 전달매체는 요즘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는 SNS를 통해 매일 아침 4장의 사진 파일을 전달하였고 그것을 가지고 하루를 묵상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나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또한 묵상카드에도 EPIC적 요소가 담기는 것을 고려하여 매일 다양한 색상으로 사순절 카드를 제작하여 시각적 다양성을 주어 전달하였다.

<그림1> 교독 형태의 기도



EPIC이 담긴 테네브레(Tenebrae) 예전: 참여(Participation)

기존의 예배가 인도자와 대표 기도자에 의해 진행되던 기도와 성경봉독 및 대부분의 기도의 형태를 예배에 참여한 인도자와 회중이 함께 교독하는 형태의 기도로 진행하였다. 이것을 통해 회중이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체의 내용을 구성하였다. ‘예배로의 부름’, ‘죄의 고백과 사죄의 기도’, ‘조명기도’, ‘성경봉독’, 성찬시 ‘제정의 말씀’ 과 ‘감사의 기도’가 이러한 교독의 형태를 띤다. 또한 전체 예식의 순서를 구성함에 있어 ‘설교’와 ‘성찬 기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부분에서 회중과 함께 예배를 만들어나가는 형태로 구성하여서 모든 회중의 참여비율을 높였다.

촛불의 소화와 가상칠언

테네브레 예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 가상칠언의 봉독, 그리고 봉독 후의 소화를 목회자가 아닌 회중에게 맡김으로써 모든 회중이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지금 예전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으로 동일시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령, 적절한 성비율로 담당을 배정하였다. 아울러 어두움에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의 청각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알리는 징을 치는 역할도 목회자가 아닌 참여의 영역으로 배치함으로써 테네브레 예전 전체를 함께 만들어가는 예전으로 구성하였다.

EPIC이 담긴 테네브레(Tenebrae) 예전: 이미지(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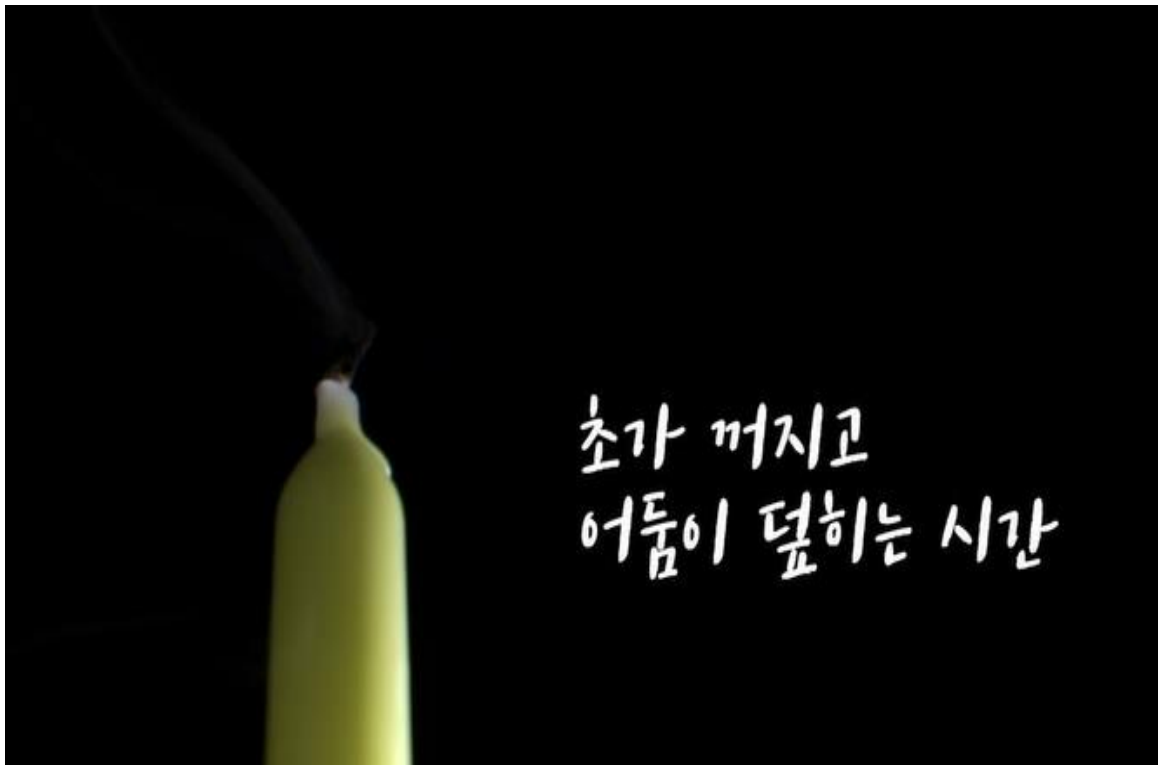
시작 전 영상은 전체 성금요일 테네브레 예전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 회중들에게는 생소한 예식이기에 사전에 기반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온전히 전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중이 경험할 수 있는 깊이도 알을 수 밖에 없다. 앞서 한국교회가 경험과 이해라는 예배에 있어 두 마리 토끼를 놓쳐버린 것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보다 깊은 경험을 위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배려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렇기에 예식이 시작되기 전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여 오늘 진행되는 예전에 대한 정보와 예전이 담고 있는 의미를 설명하였다. 오늘 예전이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사역을 따라 성목요일 성찬을 나누신 것을 오늘 우리도 함께 나누는 것이며 성금요일 십자가 도상에서 주님이 하신 가상 칠언을 마칠 때마 초가 하나씩 꺼짐에 대한 설명을 통해 예식 전체에 대한 회중이 이해도를 높여주는 중요한 장치의 역할을 한다.

또한 예배 공간 디자인을 세부적으로 설명해줌으로써 단순히 미적 감각을 위한

공간 디자인이 아닌 하나 하나의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의 깊은 의미를 사전에 설명해줌으로써 보다 주님을 묵상할 수 있는 매개체로써 공간디자인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에 시작 전 브로셔를 통해 또한 LED 화면을 통해 예배를 준비하며 계속적으로 설명이 나올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본당 정면에 걸린 십자가에 가시면류관을 설치하고 검은 천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강단에 오르는 계단에까지 길게 내려오도록 디자인 하였다. 여기서 검은 천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가운데 오셔서 걸으신 고난의 여정을 상징하며 그 고난의 마지막 도착점은 십자가와 가시면류관으로 가시는 길이었음을 시각적인 이미지를 통하여 표현하였다.

<그림2> 시작 전 정보 영상과 브로셔(시각)



<그림3> 십자가와 가시면류관, 검은 천(시각)



<그림4> 장미꽃과 초(시각)



전체적인 예배공간 디자인에서 장미꽃과 초를 사용하여 예수님을 묵상하도록 구성하였다. 장미는 사랑과 은혜의 은유적 표현인 “샤론의 꽃” 이신 예수를 상징하며 검은천 위에 흩어뿌림으로써 예수님의 그 모든 고난의 여정 곳곳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음을 표현하였다. 초는 어두운 세상에 “빛” 으로 오신 주님을 상징하는 장치로 초의 특성이 자신의 몸을 녹임으로써 빛을 발한다는 상징성이 있기에 예수님의 고난의 사역을 이미지화 시키기에 적절한 상징물이라고 할 수 있다. 초의 크기는 다양하게 준비하였으며 색상은 예전의 색인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색, 영적씻음과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라색, 전통적으로 성목요일에 주로 사용되었던 흰색초로 구성하여 시각화 하였다.

<그림5> 성찬대와 성찬(시각, 미각)



성찬대 역시 예전색인 빨간색 한지와 보라색 한지를 사용하여 전체 디자인하였고 빵과 잔은 기존에 성찬식에서 사용하는 분잔된 형태의 집기가 아닌 도자기를 형태의 집기를 사용하여 디자인함으로써 좀 더 전통적인 예전의 분위기를 살리고자 하였다. 또한 성찬을 통해 주님의 몸을 만지며(촉각), 우리가 먹고 마심(미각)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었다.

장미꽃 향기(후각)

회중들의 후각적 요소로 고려하여 샤론의 꽃이신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예배당 전체를 장미향이 가득 느껴질 수 있도록 후각적인 요소를 준비하였는데, 넓은 공간을 효과적으로 장미향으로 채우기 위해서 장미향 섬유탈취제를 사용하여 예배 시작 30분 전부터 곳곳에 뿌려 회중들이 예배 장소에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장미향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단순히 보여지는 장미의 시각적 이미지 만이 아니라 실제로 회중이 자신의 후각을 통해 장미향을 느낌으로써 다감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고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였고 보다 이 예전을 입체적으로 인식할 수 장치가 되었다.

<그림6> 문화공연(‘보혈을 지나’ -한국무용)



예식 전 조금 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장치로 한국무용을 전공한 성도님의 문화공연을 짧게 진행하였다. BGM은 ‘보혈을 지나’ 라는 십자가 고난을 묵상할 수 있는 음원을 사용하였고 한국 무용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서양적인 예식을 우리 정서에 맞게 이미지화함으로써 멀게 느껴지지 않고 가깝게 느껴지는 정서적 분위기를 만들고자 하였다. 또한 주의 십자가를 눈에보이는 공연을 통해 시각화함으로써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EPIC이 담긴 테네브레(Tenebrae) 예전: 관계(Connection)

<그림7> 성만찬



제임스 화이트는 성찬 성례전을 설명하며 바울을 언급한다.

바울은 세 번째 이미지에 대해 자주 언급하는데, 성도가 함께 나누는 교제(communion) 혹은 친교(fellowship)가 그것이다.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의 친교는 그리스도와 하나 됨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유출된다.⁶⁰

즉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몸된 교회와 연합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테네브레 예전은 고난 주간 주님의 시간을 묵상할 수 있는 순서로 예전이 배치되며 그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성찬의

⁶⁰ James F. White, *하나님의 자기 중심의 선물: 성례전*, 김운용 역 (서울: 예배와설교아카데미, 2006), 122.

예식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와 하나 됨으로 다가온다.

EPIC이 담긴 테네브레(Tenebrae) 예전: 경험(Experience)

<그림8> 물두멍과 섬유펜(촉각)



테네브레 예전을 마치고 “주님께 고백합니다” 부스를 배치하고 고백의 종지와 섬유펜을 비치하였다. 물두멍은 하나님께서 구약 제사와 성소를 출입 시마다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게 하심으로 제물과 재 묻은 수족을 씻어 정결케하신 도구이다. 그리고 늘 물두멍을 채우라 명령하심을 통해 늘 부족함 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셨다. 이것은 개시의 현재성을 나타내기 위해 구약의 물두멍의 메타포를 가져와 신약의 십자가와 배치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오늘도 역사하심을 표현하고자 했다.

이들이 테네브레 예전을 마치고 퇴장하며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부스에서 비치된 용지에 섬유펜을 통하여 진실되게 고백하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물두멍을 통하여 용지에서 자신의 회개의 제목이 사라지는 것을 통해 구약의 물두멍과 신약에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오늘날을 살아가는 자기의 직접적인 구속의 은혜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경험으로써의 예배를 구성하였다.

테네브레(Tenebrae) 예전: 예식서

전체적인 예배의 구조는 예배의 4중 구조 중 말씀의 예전과 성찬예전을 추가하였다. ‘개회예전-말씀예전-성만찬예전-테네브레예전-과송예전’ 으로 진행된다.

I . 예배로 부름과 나아감 .

죄의 고백 인도자/ 회중

인도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겸손한 종의 모범으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생명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사죄함을 받으시라.

(침묵의기도)

인도자: 주님,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부인하며, 가룟 유다처럼 주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욱 사랑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 중: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예배의 부름

.....
인도자: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주의 예배로 부르십니다.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인도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회 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인도자/ 회중

<p>응 답 송</p>	<p>인도자: 주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즐거움과 민족을 위해 주님을 다시 못 박고 또 못박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p> <p>회 중: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도자: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병든 마음을 고치시며 상한 심령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p> <p>회 중: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한량없는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p> <p>인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 받았음을 선언합니다.</p> <p>다함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p> <p>.....약함 때 강함 되시네.....</p>	<p>다같이</p>
--------------	---	------------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원제: 주 나의 모든 것)

Dennis Jernigan

You are my all in all

예수전도단 역

G D Em G C D G D7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님의 모든 것 -

G D Em G C D G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G D Em G C D | 1. G D7 | 2. G

예수 어린양 존귀한 이름 - 음

II. 말씀의 예전		
조 명 기 도	<p>.....</p> <p>인도자: 우리는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과 같이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는 부족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p> <p>회 중: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말씀되신 주를 온전히 보게 하소서.</p> <p>인도자: 우리는 주의 제자들과 같이 비유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p> <p>회 중: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사 말씀 속에 감추어진 뜻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p> <p>다함께: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p>	인 도 자 / 회 중
성 경 봉 독	<p>.....요한일서 2장 7-17절(신약388쪽).....</p> <p>7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입니다. 그 옛 계명은 여러분이 들은 그 말씀입니다</p> <p>8 나는 다시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써 보냅니다. 이 새 계명은 하나님께도 참되고 여러분에게도 참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치고 있기 때문입니다.</p> <p>9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p> <p>10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그 사람 앞에는 올무가 없습니다.</p> <p>11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 속을 걷고 있으니,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p>	다 같 이

문 화 공 연		이유진 자매
말 씬	유월절 어린양 예수	박대원 목사
찬 양	은혜로만	다 같 이

은혜로만

Gerrit Gustafson

예수전도단 역

은혜로만 - 들어가 - 네 - 은혜로만 - 선대네 -
 우리의노 - 려이아 - 님 - 어린양의 - 보혈로 -

그분의잉 - 재가운 - 데 - 오 라 - 하시네 -

우리를부 - 르신그 - 곳 - 은 혜로들어 - 가 네 -

주님의그 - 은 혜 - *to Coda* ^{last}time *time* 범좌한우 - 리가어 - 지

III. 성만찬 예전

<p>성찬으로서의 초대</p>	<p>.....</p> <p>집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의 만찬을 회상하며 기념하는 성찬 예식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피 받아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가 되어 주님의 몸된 영은교회로 모였음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p> <p>이 시간 성찬을 받기 전 우리에게 주신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p> <p>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p>	<p>집례자</p>
<p>사도신경</p>	<p>.....</p> <p>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p>	<p>다같이</p>
<p>성찬기도</p>	<p>.....</p> <p>거룩하신 주님 이시간 주의 몸과 피를 받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정결케하셔서 성찬에 참여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p>	<p>다같이</p>

찬	양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다	같	이
---	---	---------------	---	---	---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Chord Arranged by 은영 송정미/최덕신

The musical score is written in 4/4 time with a key signature of one sharp (F#). It consists of three staves of music with lyrics underneath. The lyrics are: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and '하소서 임하소서 알렐루야 알-'. Chords are indicated above the notes.

제정의 말씀	<p>.....</p> <p>집례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 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드시고 감사를 드리신 후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십시오. 이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p> <p>다함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아멘</p>	집례자
--------	--	-----

찬	양	사랑의 나눔	다	같	이
---	---	--------	---	---	---

사랑의 나눔

Taize

Copyright (C) Taize. International Rights Secured.

<p>감 사 의 기 도</p>	<p>.....</p> <p>집례자: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은총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였습니다. 비옵나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수난에 동참하여 구원의 길을 함께 가게 하소서.</p> <p>회 중: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p>	<p>집례자 / 회 중</p>
------------------	---	------------------

IV. 어둠의 예전(테네브레)

기	도	<p>.....</p> <p>인도자: 빛이 세상에 왔으나, 우리는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잘못입니다.</p> <p>회 중: 하나님은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없애 주십니다.</p> <p>인도자: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p> <p>회 중: 누구든지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진리의 영에 감동 받은 자는 빛을 사랑하고 빛으로 나옵니다.</p> <p>다함께: 우리 모두가 빛을 따라 주님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p>	인도자/ 회 중
---	---	--	----------

찬	양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다 같 이
---	---	-------------	-------

내게 있는 향유옥합
(원제: 옥합을 깨뜨려)

박정관

The musical score is written in G major (one sharp) and 4/4 time. It consists of four staves of music with Korean lyrics underneath. The lyrics are: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가져 와 / 그 발 위에 입 맛 추고 깨뜨-립 니 다 /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 걸 음 마 다 크 신 사 랑 새 겨-놓 았 네'. The score includes various guitar chords such as D, A/C#, Bm, F#m/A, G, E7/G#, A, A7/B.C#, A7, D (F#m/C#), Bm, A, G, F#m, G, E7/G#, Asus4, A7, and D D.C. Fine.

<주 님 의 수 난 목 상>		
가 상 칠 언 직 전 말 씀	<p>.....</p> <p>[목상1] 누가복음 23:13-25</p> <p>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민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 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p> <p>- 첫 번째 촛불 소화 -</p>	김병대 장로
가 상 칠 언 첫 번째 말 씀	<p>.....</p> <p>[목상2] 누가복음 23:33-34 (가상칠언 첫번째 말 씀)</p> <p>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p> <p>- 두 번째 촛불 소화 -</p>	김태욱 집사
가 상 칠 언 두 번째 말 씀	<p>.....</p> <p>[목상3] 누가복음 23:39-43 (가상칠언 두번째 말 씀)</p> <p>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p> <p>- 세 번째 촛불 소화 -</p>	김고운 집사
가 상 칠 언 세 번째 말 씀	<p>.....</p> <p>[목상4] 요한복음 19:25-27 (가상칠언 세번째 말 씀)</p> <p>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p> <p>- 네 번째 촛불 소화 -</p>	윤혜린 집사

<p>가 상 칠 언 네 번째 말씀</p>	<p>..... [묵상5] 마가복음 15:33-38 (가상칠언 네번째 말씀)</p> <p>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p> <p>- 다섯 번째 촛불 소화 -</p>	<p>이해나 집사</p>
<p>가 상 칠 언 다섯 번째 말씀</p>	<p>..... [묵상6] 요한복음 19:28-29 (가상칠언 다섯번째 말씀)</p> <p>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p> <p>- 여섯 번째 촛불 소화 -</p>	<p>김준현 집사</p>

예수 나를 위하여

1.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2.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세 상 죄 를 지 시 고 고 초 당 하 셧 네
저 무 지 한 사 람 들 메 시 야 죽 였 네

예 수 여 예 수 여 나 의 죄 위 하 여

보 배 피 를 흘 리 니 죄 인 받 으 소 서 아 멘

<p>가 상 칠 언 여섯 번째 말씀</p>	<p>..... [묵상7] 누가복음 23:44-47 (가상칠언 여섯번째 말씀) 때가 제육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p> <p>- 일곱 번째 촛불 소화 -</p>	<p>이명현 집사</p>
<p>가 상 칠 언 일곱 번째 말씀</p>	<p>..... [묵상8] 요한복음 19:30 (가상칠언 일곱번째 말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p> <p>- 그리스도 초 밖으로 -</p>	<p>한인수 집사</p>
<p><징 울림 3회> *징울림을 통해 예수의 죽으심을 청각적으로 묵상하며 경험한다.</p>		
<p>마 지 막 묵 상</p>	<p>.....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 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p>	<p>김현우 집사</p>
<p>그리스도 촛불 입 장</p>	<p>이제 모두 일어나서 어둠에서 빛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p>	<p>집 레 자</p>

찬	양	보혈을 지나	다 같 이
---	---	--------	-------

보혈을 지나

김도훈

Copyright (C) 2001 Witness Club 'Potential Concert 3rd'. Used by Permission.

V. 파송 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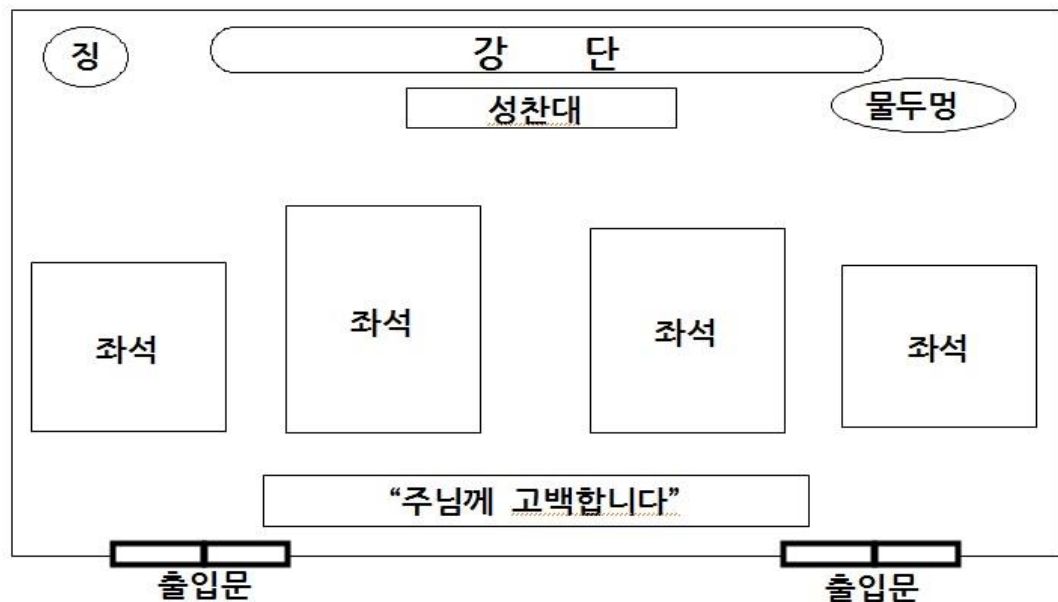
축	도	<p>.....</p> <p>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기도하겠습니다.</p> <p>여호와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p>	인도자 / 회중
---	---	--	----------

테네브레(Tenebrae) 예전: 예배 공간디자인

마지막으로 물두멍과 “주님께 고백합니다” 부스의 위치는 이동 동선에 따라 가변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본 교회에서는 출입문 밖에 설치하여 예배 시 퇴장하며 물두멍을 체험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이때 본인이 주님께 고백할 죄의 모습을 용지에 기록하여 구약에 등장하는 속죄의 메타포인 물두멍에 적시게 되고 섬유펜으로 작성된 내용은 물에 자연스럽게 지워지게 됨을 통해 주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과거의 사건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임을 직접 목상하며 경험하게 된다.

<그림9> 테네브레(Tenebrae) 예배 공간 디자인 배치도

공간 디자인 배치도



<그림10> 테네브레(Tenebrae) 예배 공간 디자인



제 V 장

영은교회 성금요일 예배 연구 평가

새로이 기획한 성금요일 테네브레 예전에는 250여명의 EPIC 세대들이 참석하고 당회원들과 다양한 연령의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주셨다. 전통적인 교회인 영은교회에서는 이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예배적 시도이기에 일반 성도님들에게도 관심을 자극하며 좀 더 성금요일 예배를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목마름과 필요성을 느낀 사람들로 회중석이 가득채워진 채 진행이 되었다.

필자의 평가

필자의 목회의 주요 관심 대상은 EPIC 세대이다. 이들이 건강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윗 세대들에게 수동적 타의적으로 전수 받은 신앙이 아닌 본인이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하는 신앙의 주체가 되는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필자의 목회 비전이다. 그러기 위해서 현재 한국교회 가운데 영적 사각지대에 위치한 EPIC 세대들이 그들의 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맞는 예배를 고려해야 하고 이 예배에는 경험적, 참여적, 이미지적, 공동체적 요소가 가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성금요일 테네브레 예식은 젊은 부부에게 있어서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판단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EPIC 세대가 직접 함께 예배를 만들어갔다는 것이다. 기존까지의 예배는

늘 육아와 바쁜 일상으로 주일 예배시 주변인에 불과하던 젊은 부부들이 예배의 수동적인 위치가 아닌 직접 예배를 진행하며 순서에 참여함으로써 적극적인 위치와 능동적인 위치로 이끌었다. 과거 특정 인원에게만 부여했던 예배의 참여가 모든 회중이 함께 교독하며 참여함을 통해서 EPIC의 요소 중 참여의 요소를 충족시킴으로써 자기 자신의 예배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장이되었다. 또한 이번 성금요일 테네브레 예전을 준비하며 함께 스태프로 예배 참여자로, 봉독위원으로, 문화공연으로 참여하며 돕는 젊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젊은 부부의 소그룹들을 섬겨주는 일꾼으로도 세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예배가 일회적으로 진행되는 단편적인 영향력으로 판단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일깨워줬다.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새로운 공동체의 활기가 불어넣어졌고 또 그 가운데 자신의 주어진 달란트와 노력을 가지고 신앙의 헌신이라는 연속성의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둘째, 젊은 부부에 대해 교회가 다시금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영적 공급의 단절에 대해 함께 숙고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단순히 교회가 젊은 부부들을 위해 자모실만을 개방하는 것으로 교회의 역할과 소임을 다했다 여겼던 현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고 다음 세대의 기둥과 같이 세워질 젊은 부부에 대한 관심으로 전환되는 발판이 되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교육성, 생산성, 진취성, 연결성의 잠재력에 대해 함께 공감하였으며 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예배의 제공에 대해 다시금 고민하게 되었다. 이러한 고민은 예배적 차원 뿐만 아니라 교회의 다양한 사역과 활동에 있어서도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되어 진다.

셋째, EPIC의 요소가 조화를 이룬 예배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경험을 얻게 되었다. 필자의 교회는 60년이라는 전통의 교회이기에 보수적인 성향이 매우 강한 교회였다. 그렇기에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새로운 예배에 대한

거부감이나 부정적 반응에 대한 우려를 품고 있었다. 하지만 이렇게 회중이 함께 참여하며, 다양한 예배 공간을 디자인 함으로써 주님의 고난을 시각화, 후각화, 청각화, 촉각화, 미각화 함을 통해 더 깊이 그 의미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유익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반응으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향후 본 교회가 좀 더 다양하게 EPIC적인 요소를 가미한 예배를 기획함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좀 더 효과적인 은혜와 복음의 전달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할 수 있는 기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넷째, EPIC 세대와 장년이 공동체 안에서 연결되는 장이었다. 처음의 기획의도는 EPIC 세대를 위한 성금요일 테네브레 예전이었지만 당일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석한 장년들 역시 다감각적, 입체적인 예배의 은혜를 함께 누렸다. 이것은 EPIC 세대 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장년들에게도 충분히 EPIC의 예배가 유익할 수 있다는 가능성 보여준 동시에 세대와 세대가 이어지는 연결이 이루어지는 예배였다. 함께 기도문을 교독하고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함께 주님의 살과 피인 성찬을 나누며 개별적인 성도가 아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지체로써 하나되는 신앙의 공동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무엇보다도 개인의 경험이 살아있는 예배였다는 점이다. 물론 촛불을 소화하며, 징을 치고, 말씀을 전하는 자와 찬양하는 자 등 역할의 분담이 있었지만 촛불이 꺼졌을 때 모든 회중이 어두움의 깊어짐을 느꼈고, 징을 치는 소리에 모든 회중들이 청각적 메시지를 경험했다. 또한 개개인이 주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의 고난을 직접경험하는 순간이었다. 특별히 마지막 물두멍을 통해 주님의 대속의 사역이 구약에서부터 신약, 그리고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개개인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성과이다.

당회원들의 평가

처음에는 생소한 예배의 형태라 관심과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지만 당일 테네브레 예전을 참여하고 함께 예배를 진행한 후 모두 다 긍정적인 평가와 반응을 내렸다. 모든 예배를 기획하여 EPIC적인 예배로 드릴 수는 없지만 특별히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활주기와 성탄주기라는 두 중심에 관련하여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는 찬성의 의견으로 동의하였다.

EPIC 세대가 예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당일 청년부 교사들을 통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배려하였는데 오히려 성금요일 테네브레 예전을 마치고 당회에서는 6~7세 아이들을 함께 예전을 참여하는 것도 유익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지속적인 EPIC 세대를 위한 양육의 프로그램도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자녀가 있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을 그룹으로 형성하여 좀 더 그들이 필요한 영적인 공급과 신앙적 교제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집중해야 할 것을 동의하는 모습을 통해 단순히 일회적인 예배보다는 교회가 EPIC 세대를 위한 관심이 확장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예배위원회들의 평가

함께 성금요일 테네브레 예전을 준비하며 예배공간을 디자인하고 가상칠언의 봉독자로, 문화사역으로, 당일 진행을 위한 다양한 스태프로 참여한 예배위원들의 평가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며 상당히 이 예식이 그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고무적인

역할을 했다고 느꼈다. 단 교회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다감각적인 예식이다보니 수차례 리허설을 준비했지만 당일 진행에 있어 작은 시행착오들이 있었다. 약간의 음향이 고르지 못한 부분이나 징의 울림이 다소 작게 컸던 부분들과 같이 작은 부분들의 시행착오였기에 전체적인 예배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집중도가 끊어지지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예배 위원들은 실제 그들이 고난주간 하루하루 예수님의 여정을 되짚어 볼 수 있었다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직접 본인이 예전을 만들어가는 참여자로서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이 그동안 잘 와닿지 않고 멀게 느껴진 성금요일 예배가 아닌 예수님의 고난과 수난을 더 깊이 묵상하며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하였다. 특별히 예배 공간디자인에 대한 평가도 두드러졌는데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미리 사전에 영상을 통해서, 브로셔를 통해서 전달하게 함으로써 단순한 시각적 만족이 아닌 예배당 전체가 주님의 수난을 묵상할 수 있는 장치가 됨이 좋하다는 평가가 많았다. 또 성금요일 예배외에도 성탄절과 같이 중요한 절기에 이런 EPIC의 요소가 포함된 기획예배가 진행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EPIC 세대의 평가

성금요일 테네브레 예전을 마치고 예배에 참여한 EPIC 세대 성도들에게 예배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다. 총 253명(장년:96명, EPIC 세대:157명)이 참석하였고 그 중 장년과 EPIC 세대의 만족도를 분류하여 진행하였다. 전체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전체적인 예전에 대한 만족도는 총점 6점 만점에 5.32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표1> 테네브레 예전에 대한 평가표

	평균
예배공간디자인	5.63
영상과 브로셔를 통한 안내	5.81
교독형태의 회중의 참여	5.00
테네브레 예전	4.80
성찬식	5.10
물두멍,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5.42
행사일정과 장소	5.71
전체적인 진행과 스태프의 섬김	4.68
음향환경	4.96
예배에 대한 신선함	5.70
전체적인 예전에 대한 만족도	5.32

교우들의 평가

총 96명의 장년 세대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대체적으로 거부감이나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긍정적으로 의견이 많았다. 새로이 시도하는 예배다 보니 기존의 장년들에게는 생소한 예배였기에 우려를 많이 했지만 EPIC 세대의 평가와 크게 차이나지는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는 평가와 다음번에 또 이런 기획예배가 있다면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의 비율이 높았다는 것은 전통적인 교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었다. 또한 EPIC 세대에 포커스를

맞춘 예배에 함께 참여함을 통하여 좀 더 젊은 부부 가정들에 대한 교회적 차원의 영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돌아보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제 VI 장

결 론

교회는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고수한다. 진리의 순수성과 본질을 중요시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이번 연구를 통하여 기존 교회에서 오랜 시간 진행되었던 예배의 형식을 무조건적인 정답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교회는 마치 진공 속에 예배를 담아놓고 그것만이 최선이라는 정답이라는 생각에서 탈피해 현재 시대의 흐름속에서 변화하는 세대의 필요와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가장 적합한 예배의 형태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기존의 형식만을 고수하며 다른 다양성에 대해 배재하는 것은 오히려 새로운 세대에게는 답답함과 오로지 이성만을 강조하는 예배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교회는 그들에게 필요한 EPIC의 요소가 풍부하게 가미된 예배의 형식이 보다 폭넓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김순환은 “예배는 문화의 옷을 입고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였다.”⁶¹고 말한다. 그렇다. 교회는 수천년이라는 역사 속에서 그 시대에 맞는 예배의 형식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선포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임재를

⁶¹ 김순환, *21세기 예배론*, 117.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였다. 신앙공동체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세워지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으며 예배를 통해 세상과는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기에 예배야말로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드러졌던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있는 신앙의 요소였는지를 다시금 깊이 체감하고 깨닫게 되었다.

또한 이번 연구는 포스트모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EPIC 세대에 대해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였다. 다시금 성도들의 영적 필요가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되었고 이들에게 주어진 EPIC적인 요소가 부재한 한국교회의 예배도 점검해볼 수 있었다. 또한 EPIC의 요소가 풍성하게 구성된 예배를 통해 직접적인 경험을 소유한 성도들이 교회에 일꾼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발견함을 통해서 현재 극심한 침체에 빠져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안이 이 시대에 맞는 예배를 교회가 제공할 수 있는가에 달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배에 사용되는 다양한 이미지와 상징에 유익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었다. 현재 필자가 속한 교회는 장로교 통합측 교단으로 칼빈의 전통을 뿌리에 두고 있기에 예배 속에서의 상징과 이미지적인 요소를 철저히 배제한 모습 그대로가 전수되었다. 설교자의 권위가 중요시되며 전통적인 예식에서 변화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바른 이해를 제공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징과 이미지가 예배 가운데 유익하게 사용될 때 이러한 다양한 상징적 의미와 이미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목상하게 만드는 선한 도구가 됨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많은

한국교회에서의 성찬의 위치는 예배의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라는 인식으로 인해 1년에 2~3회에 국한되어있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다. 필자의 교회 역시 연 2회로 진행되고 있던 현실이다. 하지만 이런 성찬의 축소화는 신앙공동체가 주의 식탁을 함께하는 주의 백성이라는 공동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현저하게 축소되고 약화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다시금 우리의 목회가운데 성찬이 가진 이러한 공동체의 하나됨을 확인하는 주의 식탁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깨달음과 더불어 보완점이라는 숙제도 주어졌다. 현재 한국의 많은 교회들 상황에서 매주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경험, 참여, 이미지, 연결성이라는 EPIC의 요소가 풍성하게 가미된 예배로 드려지기에는 다소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에 필자 역시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EPIC적으로 기획하기보다는 교회력에서 중요한 절기인 부활절을 중심으로 주님의 고난이 극대화되는 성금요일 예배를 기획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EPIC 세대에게 이런 다감각적인 예배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중요한지를 깨달았다라면 이제는 이러한 경험을 기반으로 포스트모던의 시대를 살아가는 EPIC세대의 신앙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도록 이런 EPIC적인 요소가 담긴 다양한 절기 예배를 기획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도 이런 풍성함이 잘 묻어나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또 다른 숙제를 가지게 되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필자의 교회는 올해 60주년을 맞이하는 기성교회이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진행되던 형식에서 변화를 주고 무언가 새로운 시도에 대해 보수적인 신앙의 성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별히 예배에 관하여는 더욱 그러한

경향이 강하게 있었다. 하지만 이번 EPIC 세대를 위한 성금요일 예배를 새롭게 기획하고 특별히 교회력에 중요한 절기인 부활절 주기와 맞물려 성금요일 예배를 드림으로써 포스트모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인 참여와 경험, 다채롭고 다감각적인 이미지, 성도간의 공동체성이 얼마나 예배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EPIC 세대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장년들 역시 절실하게 느낀 귀한 시간이었다. 아무리 세대가 변하고 자신들만의 사회적 문화적 특성이 있더라도 그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전달되는 예배의 본질과 능력은 변함없이 전달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십자가라는 복음의 본질에는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현재 주어지니 문화는 그 본질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해주는 도구가 된다. 그렇기에 교회는 문화를 세속적으로만 바라보거나 철저히 배제해야 할 요소로만 바라보고 현재의 방식만을 고수하며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의 바른 방향성과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과 분별력을 구해야 한다.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를 풍성하고도 온전히 전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리는 고민하며 또 고민하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교회는 오늘만을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다. 또한 과거에만 묶여 회상하는데 머물러있는 공동체 역시 아니다. 물론 교회가 가진 역사와 전통을 소중히 간직하며 회상하여야 하지만 더 큰 초점은 미래에 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미래지향적 공동체이며 세상을 변화시키고 주도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가 감당하는 모든 사역의 출발점이자 베이스캠프는 예배에 있다. 예배가 죽을 때 모든 교회의 기능이 약화되고 성도 안의 날카로운 각이 서는 반면 예배가 살아날 때 모든 것이 살아나고 교회의 모든 기능이 활성화 된다. 마치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가 부어졌을 때 그 마른 뼈들이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로 변화되고

세워졌던 것과 같이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의 힘과 능력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현장을 하나님과 성도의 만남의 현장으로, 경험의 현장으로
만들나가는 사역이 오늘도 계속되어야 함을 깨달았다.

부록1.

성금요일 테네브레 예전 홍보 포스터>



부록2.

성금요일 테네브레 예전 주보 속면

I. 예배로 부름과 나아감

설교 전까지 일어서서합니다

예배의 부름 인도자/회중

인도자 :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인도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회 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갈 것이니라 (아멘)

죄의 고백 인도자/회중

인도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겸손한 종의 모범으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생명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사죄함을 받읍시다.

(침묵의기도)

인도자: 주님,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사랑을 잊어버리고 주님을 부인하며, 가혹 유대처럼 주님보다 세상의 가치를 더욱 사랑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 중: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인도자: 주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주님을 다시 못 박고 또 못박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 중: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인도자: 주님, 우리 심령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시고 병든 마음을 고치시며, 상한 심령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 중: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시고 사망 광채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 간구하오니, 한량없는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주옵소서.

인도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다함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응답송 약할 때 강함되시네 다 같이

II. 말씀의 예전

조명기도 인도자/회중

인도자: 우리는 옴마오 도상의 제자들과 같이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는 부족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틀어도 깨닫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회 중: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 말씀되신 주를 온전히 보게 하소서.
인도자: 우리는 주의 제자들과 같이 비유를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회 중: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어 말씀 속에 감추어진 뜻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다함께: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성경봉독 요한일서 2장 7-17절 다 같이

문화공연 이유진 청년

말씀 유월절 어린양 예수 박대원 목사

찬양 은혜로만 박대원 목사

III. 성만찬 예전

기도 집례자/회중

사도신경 다 같이

성찬기도 박대원 목사

찬양 주님의 성령 박대원 목사
지금 이곳에

제정의 말씀 집례자

찬양 사랑의 나눔 다 같이

감사의 기도 집례자/회중

성금요일 테네브레 예전 주보 걸면

IV. 어둠(테네브레)의 예전		
찬 양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다 같이
<주님의 수난 묵상>		
가상 칠언 직전 말씀		김병대장로
가상 칠언 첫 번째 말씀		김태욱집사
가상 칠언 두 번째 말씀		김고운집사
가상 칠언 세 번째 말씀		윤혜린집사
가상 칠언 네 번째 말씀		이해나집사
가상 칠언 다섯 번째 말씀		김준현집사
찬 양	예수 나를 위하여	이준희 목사
가상 칠언 여섯 번째 말씀		이명현집사
가상 칠언 일곱 번째 말씀		한인수집사
<징 울 림>		
마 지 막 묵 상		김현우집사
<부활의 소망, 그리스도 쫓붙이의 입장>		
찬 송 가	보혈을 지나	다 같이

V. 파 송 예 전

축 도		박대원 목사
-----	--	--------

2019 성금요일 예배

테네브레(Tenebrae)

어둠의 예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히9:12)

영은교회 고/난/주/기
일시 : 2019.4.19(금) PM 08:00
장소 : 영은교회 비전센터 비전홀(3F)



부록3.

만족도 평가 설문지(EPIC 세대용)>

[성금요일 테네브레 예전에 대한 평가 설문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참여하는 성금요일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새롭게 시도한 성금요일 예배에 대한 만족도 조사로 다음 설문에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꼭 연령을 적어주세요~!!)

연령 : _____세

순번	항 목	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
1	예배공간디자인	①	②	③	④	⑤	⑥
2	영상과 브로셔를 통한 안내	①	②	③	④	⑤	⑥
3	교독형태의 회중의 참여	①	②	③	④	⑤	⑥
4	테네브레 예전	①	②	③	④	⑤	⑥
5	성찬식	①	②	③	④	⑤	⑥
6	물두멍,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행사일정과 장소	①	②	③	④	⑤	⑥
8	전체적인 진행과 스텝의 섬김	①	②	③	④	⑤	⑥
9	음향환경	①	②	③	④	⑤	⑥
10	예배에 대한 신선함	①	②	③	④	⑤	⑥
11	전체적인 예전에 대한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⑥

이번 성금요일 테네브레 예전 가운데 좋았던 점

이번 성금요일 테네브레 예전 가운데 아쉬웠던 점

설문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 4.

“사순절, 40일의 여정” 매일 묵상카드

사순절 1DAY	
<div data-bbox="332 493 820 1102" data-label="Text"> <p>오늘은 '사순절(Lent)'의 첫 시작인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입니다. 사순절 40일의 첫 시작이 되는 수요일을 특별히 이렇게 부릅니다. 따로 예식을 드리는 교회들은 아직 많지 않지만 그 의미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사순절을 시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간단히 정리해봅니다^^</p> </div> <div data-bbox="332 850 511 1102"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673 777 836 1102"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1015 462 1291 766"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933 756 1006 850" data-label="Text"> <p>체크 1</p> </div> <div data-bbox="1015 798 1274 850" data-label="Section-Header"> <p>왜 재를 사용합니까?</p> </div> <div data-bbox="950 871 1291 1081" data-label="Text"> <p>재의 수요일 예식에서는 말 그대로 '재(먼지)'라는 모티브를 사용하는데, 한 해 전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잎을 태워서 재를 만들고, 그 재를 이마 혹은 손들에 십자가 모양으로 바릅니다. 이때 집례자는 성경 말씀 몇 가지를 읽어주게 됩니다.</p> </div> <div data-bbox="1291 798 1437 1144"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414 1197 755 1491"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349 1491 422 1585" data-label="Text"> <p>체크 2</p> </div> <div data-bbox="430 1522 722 1585" data-label="Section-Header"> <p>우리의 존재를 기억하라!</p> </div> <div data-bbox="373 1606 673 1806" data-label="Text"> <p>이마나 손들에 재를 바르면서,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인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라는 말씀을 읽거나,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메시지를 들려주게 됩니다.</p> </div> <div data-bbox="706 1522 852 1869"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998 1218 1339 1480" data-label="Image"> </div> <div data-bbox="933 1491 1006 1585" data-label="Text"> <p>체크 3</p> </div> <div data-bbox="1015 1522 1274 1585" data-label="Section-Header"> <p>사순절을 보내는 정신!</p> </div> <div data-bbox="950 1606 1291 1774" data-label="Text"> <p>이처럼 사순절 첫날 재를 바르는 예식을 통해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40일의 여정동안 깊이 생각 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입니다.</p> </div> <div data-bbox="1291 1522 1437 1858" data-label="Image"> </div>

사순절 2DAY

사순절 2DAY

매일 묵상



본문읽기

시편 121편 1~8절

- 1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 2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 3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 4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 5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 6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지 아니하시리로다
- 7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
혼을 지키시리로다
- 8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묵상

다시 길 위에서

우리는 다시 길 위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로써 사순절에 다시 예수께서 걸으신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시편 121편은 힘들고 위험하지만 도전할 만한 신앙의 여정을 안내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여정은 홀로 가는 것이 아닐 뿐더러 가장 좋은 길이
라는 믿음을 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과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성금요일의 수난과 부활로 이어지
는 모든 여정 가운데 동행해주시길.

우리의 기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새로운
길을 걷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40일의 여정이 아
버지와 동행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과 나의
자아와 나의 삶이 십자가 앞에 새로워지게 하여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적용

-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임을 깨닫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합니다.

- 동행은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대화하며
나아가는 것 입니다. 나의 모든 선택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사순절 3DAY

사순절 3DAY

매일 묵상

본문읽기

마태복음 6장 27~33절

- 27 너의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6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 28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 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나 믿음이 작은 자들아
-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 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 33 그러noch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묵상

세상을 사는 새로운 방식

'불안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사는 방식입니다.

불안은 강요와 괴롭힘 그리고 염려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 자신을 방어하고 가진 것을 지키려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눈덩이처럼 쌓고 지키는 일에 몰두하도록 우리를 몰아 갑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반론을 던지십니다.

"너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 염려한다고 너희 삶에 한 자를 덧붙일 수 있겠느냐?"

이런 주님의 질문은 우리의 마음을 쓰라리고 당혹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의 기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 자신을 위한 짐작을 내려놓게 하시고 자유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자리, 우리가 속한 교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로 인해 염려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깊이 기도 하고 묵상하는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새벽 미술과 같은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적용

- 나의 위치, 나의 계급, 나의 가치들로 인한 염려를 오늘 하루 내려놓으면 살아갑시다.

- 거룩한 염려를 하는 인생이 되어봅시다.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 한국교회의 사명을 위해, 나의 구별된 삶을 위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봅시다.

사순절 4DAY

사순절 4DAY

매일 묵상

본문읽기

누가복음 4장 1~4절

- 1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 2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 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하여 주리신지라
- 3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 4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묵상

여정, 유혹, 그리고 말씀

우리가 사순절의 여정을 가는 동안 두 가지 소리가 다가옵니다.
 하나는 우리의 길 위에 '확신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거스르는 행동을 조장하는 '유혹'의 소리입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의 약속과 유혹의 소리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를 결단하고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마귀의 유혹의 목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로 반응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청년들도 사순절의 기간동안 참된 확신의 소리를 경청하고, 불신앙의 소리를 경계하며, 우리의 신앙의 분별력을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사순절을 통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늘 동행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주의 백성들입니다. 저희를 공허이 여겨주시고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유혹의 소리에 반응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불고 말씀의 소리에 강령하는 인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적용

-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하루 계속 묵상하며 되새김질 하여 봅시다.

- 내게 주어진 2가지 소리 중 유혹의 소리와 하나님의 약속의 소리를 분별하며 신실하게 살아봅시다.

사순절 5DAY

사순절 5DAY

매일 묵상

본문읽기

고린도전서 1장 27~31절

- 27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 28 하나님께서 세상의 친한 것들과 멀리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 29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 30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 31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묵상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공훈의 행위들을 보여주시기 위해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생각과 모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세상을 능력있는 자들로 순위매기며 즐 세우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전능하심을 드러내 십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하나님은 나의 경험과 지식과 능력에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의 기도

약한 자를 택하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공로와 자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며 겸손한 자세로 아버지의 능력을 구하는 주의 백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적용

- 나의 어찌함을 드러내기 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힘쓰며 애쓰며 살아봅시다.

-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불구하고 나를 택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순절 6DAY

사순절 6DAY

매일 묵상

본문읽기

출애굽기 33장 19절

1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와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묵상

나는 합당한 그릇인가?

출애굽기 33장은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있었던 아색하고 복잡한 협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고, 그들을 위해 지금 모세가 간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그들을 일으켜세우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여정을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기 원하는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에 부족함이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릇인가?"

우리의 기도

은혜와 자비가 증명한 하나님 아버지!
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인생에 동반자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은혜와 자비를 믿음 부족함 없는 질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적용

-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담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인지 점검하고 돌아보는 하루가 됩시다.

- 나의 믿음의 결단이 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하루가 되어봅시다.

사순절 7DAY

사순절 7DAY 매일 묵상

본문읽기

창세기 9장 12~15절

- 12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 13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 14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 15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 16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묵상

성실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은 홍수 심판 이후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되면 "활"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활을 걸어줌으로써 전쟁과 같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모든 갈등을 종결하겠다는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동일한 아픔을 주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무지개는 노아시대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비가 온 뒤 동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늘 신실하시며 변함없이 다는 것을 모든 만물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내리워 주옵소서.
주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케하시고 무지개와 같은 평화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경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적용

- 우리에게 화목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더 친밀하게 아버지와 교제를 하루를 살아봅시다

- 무심코 지나쳐버린 자연을 바라보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해봅시다.

사순절 8DAY

사순절 8DAY

매일 묵상

본문읽기

마태복음 15장 21~28절

- 21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22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23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2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25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26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7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옴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레기를 먹나이다 하니
 28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묵상

고백하는 믿음

오늘 주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시게 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귀신들린 딸을 가진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엎드려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나의 딸을 고쳐주소서"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답변입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곳으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왜 이렇게 거절하셨을까요?

주님께서는 이 여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믿음의 씨앗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 여인의 입술의 고백이 되도록 이끌어 내신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우리 입술을 통해 증거될 때 비로소 꽃피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입술의 고백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며 믿음의 고백이 매일 리버린 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나의 믿음과 신앙을 입술로 고백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적용

- 나의 신앙을 입술의 고백으로 표현해 봅시다.

- 하루를 살아가며 최소 10번 이상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해봅시다.

사순절 9DAY

사순절 9DAY

매일 묵상

본문읽기

이사야서 55장 1~2절

1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이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 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쁨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묵상

큰 것의 유혹

오늘 읽은 이사야의 시적인 표현들은 깨어 일어나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거대한 제국과 같은 세상의 권세에 놀려 신앙에 대해 침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어나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논리에 지배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요구합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이고 선물이고 부름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법이 나를 이끌고 있는가?"

큰 것, 좋은 것을 빼앗기지 마라고 가르치는 세상 속에 가장 크고 가장 귀하며 가장 좋은 것을 친히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 번잡한 삶을 멈추고 새로운 은혜의 삶의 걸음을 걸어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논리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논리를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회복하는 하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적용

- 더 이상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 내 주변 모든 사람에게 세상의 논리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것처럼 사랑과 긍휼을 실천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사순절 10DAY

사순절 10DAY

매일 묵상

본문읽기

누가복음 2장 36~40절

- 36 또 아벨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 37 과부가 되고 팔십사 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 38 마침 이 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 39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 40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묵상

기다림, 그 아름다움

아기 예수께서 탄생 후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식을 치르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갔을 때 그 곳에서 시므온과 안나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 안나는 아벨 지파, 바누엘의 딸, 선지자라는 정보와 더불어 결혼 후 일곱 해 동안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된 84세의 여인이 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녀의 일상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과부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84년이라는 시간, 언제 만나게 될 지 모르는 아기 예수를 증명하기 위해 그녀는 기다리고 또 기다렸을 겁니다.

안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 은총'입니다.

어찌보면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 같이 오랜 시간 아기 예수를 기다리며 자신의 신앙의 자리를 지키으로써 아기 예수를 증거하는 은혜와 은총을 아름다움으로 꽃피운 인생이 아닐까요?

우리의 기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인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의 고난을 묵상하며 안나와 같이 주의 은혜와 은총을 기다림이라는 아름다움으로 꽃피우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적용

-기다림은 고난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희망이고 아름다움이기도 합니다.
나는 어떤 기다림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지 돌아봅시다.

-안나는 아기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묵묵히 지켰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써 지켜야 할 자리가 어딘지 생각해보고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서있는 하루가 됩시다.

사순절 11DAY

사순절 11DAY

매일 묵상

본문읽기

마가복음 12장 41~44절

- 41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 42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렵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 43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 44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묵상

동전 두 개와 십자가

유월절 명절이 몇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헌금을 드리는 상황과 풍경 속에 주님은 한 여인을 주목하십니다.

많은 부자들은 자랑하듯이 헌금 봉치를 헌금함에 넣는 그 앞에, 초라한 자립새에 한 여인이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어 동전 두개를 넣는 그 모습에 사람들은 수근거리입니다.

"대책 없는 여자 같으니라고. 동전 두 개밖에 없는 주제에 다 털어넣으면 어찌자는 거야?"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녀의 마음을 보시고 감탄하며 칭찬하십니다.
"저 여인이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값진 예물을 무엇일까요?

화려하고 거창하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주님을 사랑함으로 결단하는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우리의 기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길 원합니다. 겉보기에 화려하고 거창한 결단도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올려드릴 수 있는 두렵든 과부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적용

- 내게 있는 동전 두 개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것을 왜 쥐고만 있습니까?

- 사순절, 우리가 주님을 달기 위해 걸어가고 있는 이 여정속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빠져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보는 하루가 됩시다.

사순절 12DAY

사순절 12DAY

매일 묵상

본문읽기

시편 23편 1~6절

- 1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 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데도
- 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 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 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묵상

나를 영원히 따르니

오늘 다윗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따르다"는 강력한 능동형 동사로 하나님의 능동적인 사랑이 나를 강력하게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늘 도망가기 바쁩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채하고, 때로는 회피하기도 하고, 그 사랑으로부터 달아나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노력이 하나님의 인자하심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순절은 달아나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고 그 품에 안기는 절기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하나님의 품의 가치를 다시 깨닫고, 머물 줄 아는 모습이 우리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에 아름답게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만족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며
 우리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힘 바 되고 아버
 지의 품에 안기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적용

- 나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의뢰하는 하루를 살아봅시다.

- 아버지의 사랑 더욱 거하기 위한 나의 삶의 실천을 3가지만 세워 봅시다.

사순절 13DAY

사순절 13DAY 매일 묵상

본문읽기

로마서 5장 17~21절

- 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 하였으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 18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 19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 20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 21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묵상

순종함으로

오늘 사도 바울은 '대표'와 '연합'의 원리를 통해 이단의 범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대비하여 설명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써 우리가 의인의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순종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완전히 굽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기꺼이 순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기꺼이 나의 자아를 내어 드리는 그 모습이 순종의 핵심입니다.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의 기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본 받아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순종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적용

-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순종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 그 순종의 내용을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루를 시작해봅시다.

사순절 14DAY

사순절 14DAY 매일 묵상

본문읽기

누가복음 18장 9~14절

- 9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 10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 11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 12 나는 아메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 13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 14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묵상

다만 가슴을 치며

기도는 내용이 아니라 자세입니다.
그리고 태도는 기도 응답의 열쇠가 됩니다.
본문에서 의인으로 자처하는 바리새인은 교만으로 가득차 있었기에 비록 그가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을지라도, 그의 감사는 교만을 숨기는 은폐물에 불과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자신을 자랑하지도, 자신의 선행을 기억하지도 않으며 오히려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합니다.
"멀리 서서, 감히 하늘도 쳐다보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의 기도입니까?
아니면 세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느것 하나 자랑할 수 없는 죄인임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기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낮아지고 겸비한 세리의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만함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주의 성령이 불들어 주시고, 주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안에 정결한 심령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적용

-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마음에 응서 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는 하루가 됩시다.
- 또한 주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사순절 15DAY 매일 묵상

본문읽기

요한복음 3장 1~5절

- 1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 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 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 4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 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묵상

공허함의 처방전

오늘 니고데모는 단순히 호기심만으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동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지도자 계층에 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공적으로 커다란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회적으로 성공을 이룬 그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사는 현실에 대한 '괴로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니고데모에게 처방전을 다음과 같이 주십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반드시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듭나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채울 길이 성령 외에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삶이 공허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으십니까?

성령으로 채워야 한다는 우리 영혼의 경보음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공급하시는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공허한 인생에 주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주님 한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적용

- 주의 성령으로 채워지길 기도하며 공허한 세상의 가치를 쫓는 하루가 아닌 주의 성령을 구하는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 니고데모가 자신의 위치와 신분애 위험이 될 수 있음을 감수 하면서까지 주님을 찾았던 것 처럼, 조금은 어려움이 될 수 있더라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하루를 살아봅시다.

사순절 16DAY 매일 묵상

본문읽기

누가복음 24장 1~8절

- 1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 2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 3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 4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 5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 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 6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 7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대
- 8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

'아는 것'과 '믿는 것'

복음서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감과 다시 살아나심의 증인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곁을 지켰으며,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되실 때에도 함께 하였고, 부활 아침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없는 그 빈무덤을 보고 마리아가 '근심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울고 있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진술합니다.

사실 이 때까지 마리아는 '아는 것'의 믿음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비로소 마리아는 '아는 것'에서 '믿는 것'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믿음은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할 때 영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아는 것'입니까? 아니면 '믿는 것'입니까?
믿는 믿음이라면 행동으로 증명하십시오

우리의 기도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입술로만 고백하는 믿음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행동으로 반응하는 믿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증거하며,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인생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적용

-말씀을 아는 자입니까? 아니면 신뢰하며 따르는 자입니까?
자신의 삶을 결단해 봅시다.

-나의 행동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단순히 입으로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주님의 부활의 증인되는 하루를 살아 봅시다.

사순절 17DAY 매일 묵상

본문읽기

열왕기상 17장 21~24절

- 21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 22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 23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 24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 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묵상

생명력을 품은 삶

오늘 본문은 한 과부의 아이가 죽게 되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살아나는 이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소식은 생명력을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의 종에게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우리를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길인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열망하면서도 여전히 죽음의 가치에 연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확실한 선물을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그 선물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생명력을 품은 삶은 세상에 깊이 동화되지 않기 위해 애써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약속되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자녀됨의 축복을 우리가 붙들게 하시고 깊이 묵상하며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이 사순절의 기간에 여전히 죽음의 가치에 연연하며 살아가는 인생되지 않게 하시고, 생명력을 품고 애써 기도함으로써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적용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이 하루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주의 보혈의 생명력이 흘러넘치도록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하루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사순절 18DAY

사순절 18DAY 매일 묵상

본문읽기

이사야 42장 14~16절

- 14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 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심히 혈떡일 것이라
- 15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썩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 16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굵은 데를 끈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묵상

새로운 노래, 새로운 현실

이 노래에는 프로 상황인 이스라엘의 현실을 뒤집는 개혁을 담고 있습니다.

새로운 용기, 새로운 신앙, 새로운 활력, 새로운 순종, 그리고 새로운 기쁨으로 초대하는 예배 가운데 찬양으로 그려진 새로운 현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새 노래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저항하는 노래이자 현재가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새 노래는 담대한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고 눈먼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자유케하시고 치유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새 노래의 소망이, 새 노래의 고백이, 새 노래의 확신이 충만하게 넘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회복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새 노래가 가득히 열매맺는 하루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적용

- 절망과 낙심의 요소가 아닌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하루가 되도록 힘써시다.

- 우리의 찬양의 제목되시는 주님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 우리의 입술이 떠나지 않도록 함께 찬양하며 살아갑시다.

사순절 19DAY

사순절 19DAY 매일 묵상

본문읽기

마태복음 17장 1~5절

- 1 옛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 2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 3 그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 4 베드로가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 5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시니라

묵상

나의 제일되는 소원은?

변화산에서 변모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초막을 짓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존경한 엘리야와 모세, 그리고 자신들의 스승인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계속 누리고 싶어했습니다.

그때 홀연히 뒤덮인 빛난 구름 속에서 제자들에게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변화산에서 내려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의 소원은 주님과 변화산에서 머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소원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혹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과연 아버지의 뜻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하시고, 아버지가 바라보는 곳을 함께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기뻐되는 하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적용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3명 이상에게 전해봅시다.

-나의 소원의 제목이 과연 아버지의 기뻐인지를 돌아보며, 더 아버지를 미소짓게 만들기 위해 뜻을 구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해 봅시다.

사순절 20DAY

사순절 20DAY 매일 묵상

본문읽기

시편 22편 23~28절

- 23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 24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 25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감으리이다
- 26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 27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 28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재심이로다

묵상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시편 22편은 수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묵상하게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난은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는 합니다. 고난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얼굴을 향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1875-1926)는 연상의 여인에게 이런 시를 바쳤습니다.

"내 눈의 빛을 꺼 주소서, 그래도 나는 당신을 볼 수 있습니다.
내 귀를 막아 주소서, 그래도 나는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 팔을 부러뜨려 주소서, 나는 내 손으로 하듯 내 가슴으로 당신을 끌어 안을 것입니다.
내 심장을 막아 주소서, 그러면 나의 뇌가 고동질 것입니다.
내 뇌에 불을 지르면, 나는 당신을 피에 실어 나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친히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생명을 바쳐 양떼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해보입니다. 우리가 입술로 늘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그 사랑이 과연 얼마나 진실된 지 돌아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적용

-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갑시다.
-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오늘 시인의 고백과 같이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갑시다.

사순절 21DAY

사순절 21DAY 매일 묵상

본문읽기

마태복음 9장 27~31절

- 27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 28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 29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 30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였으나
- 31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묵상

나를 만져주시는 주님

심리학자들은 포용의 효과 여섯 가지를 말합니다.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심리적 안정을 주며, 혈압을 낮추어 심장에 좋게하고 공포와 두려움을 완화하며, 우울증을 감소시키고, 정신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 주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의학적인 치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하던 중증 환자와 어린이들을 차별없이 찾아가시고 그들을 초대하시며 어루만져 치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으로도 치료하실 수 있었지만 그들의 아픈 부위를 직접 만져주심으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아픈 모든 부분이 회복되고 치유됨을 경험하였습니다.

*주님이 오늘 나를 찾아오신다면, 어떤 부분을 만져주시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마음이 상하고 아픈 자들을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만나주시며 그들을 안아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서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만져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멋있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적용

- 주님께서 저를 만져주신 따스한 손길처럼, 내 주변에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하루가 됩시다.
-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가족, 친구, 동료 등)을 사랑하는 마음을 전해봅시다.

사순절 22DAY

사순절 22DAY 매일 묵상

본문읽기

에베소서 5장 4~9절

- 4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 5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 6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니
- 7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 8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 9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묵상

감사의 마음, 감사의 말

말의 힘과 영향력은 생각 이상으로 크고 놀랍습니다. 긍정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차원에서도 위력을 발휘합니다. 많은 연예인들의 자살의 원인 중 하나가 악성 댓글이라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말입니다.

본문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빛의 자녀들에게 마땅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해인 시인의 시 "말을 위한 기도"의 한 단락은 이렇습니다.

"헤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위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감사하는 말은 감사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깊은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신앙의 성숙의 척도는 감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나의 입술의 모든 말이 온전히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제사로 열납되길 원합니다. 나의 입술의 파수꾼을 세워주시사 삶의 모든 순간을 감사로 울려드릴 수 있는 성숙한 주의 자녀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적용

-사랑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을 찾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하루를 살아봅시다.

-감사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는 하루가 됩시다.

사순절 23DAY 매일 묵상

본문읽기

다니엘 9장 17~19절

- 17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며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 18 나의 하나님이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 19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며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묵상

기도의 영적 근거

다니엘은 예루살렘에 내린 분노를 거두시길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전히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사죄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자신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취 달라는 간구까지 나아갑니다.

다니엘의 기도에는 몇 가지 동사가 반복됩니다.

'들으소서', '용서하소서',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등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경험하는 시대는 나라가 무너지고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버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회복을 촉구하는 기도의 영적 근거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며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과 긍휼에 의지하여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자비하심과 한량없는 사랑에 근거하여 기도로 나아갑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적용

- 오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름과 긍휼을 의지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 또한 다니엘과 같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하루가 됩니다.

사순절 24DAY 매일 묵상

본문읽기

요한일서 2장 1~6절

- 1 나의 자녀들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 2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 3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 4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 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 5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 6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묵상

영적 모국어

동, 서양을 막론하고 자기가 쓰는 언어를 '어머니의 말', 즉 모국어라고 부르고 자기 나라를 '어머니의 나라', 즉 모국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가르치거나 배우지 않았어도, 자기도 모르게 모국의 언어와 인적, 문화를 습득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말씀이 삶으로 체화되지 않은 채로 사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언어는 여전히 세속적이고, 행동은 말씀에서 벗어난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는 마음과 생각에만 머무를 뿐, 실천이 되고 습관이 되기까지 애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거짓말 하는 자이며, 그 안에 주님의 진리가 없는 자입니다.

나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아는 지식적인 차원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삶이 되고 주님의 뜻이 나의 삶에 현실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원하오니 주의 성령이 동행하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적용

- 말씀의 실천 중 가장 내가 어려워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지키며 실천하는 하루가 됩시다.

- 오늘 특별히 나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사순절 25DAY

사순절 25DAY 매일 묵상

본문읽기

누가복음 18장 18~23절

- 18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 19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 20 네가 계명을 아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 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 21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 22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 23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묵상

나의 우선순위

탈무드는 인간을 평가하는 3가지 기준을 말합니다.
이를 히브리어로 '키소', '코소', '카소'라고 하는데 '키소'는 '돈주머니'란 뜻으로, 돈을 어디다 쓰는지 보면 사람을 알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코소'란 '술잔'으로서, 인생의 재미를 어디서 찾는지를 보면 그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카소'란 '노여움', '열정'으로서 무엇을 할 때 신을 내거나 분노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찾아온 이 청년 관리의 키소, 코소, 카소는 돈이었습니다. 재물이었습니다.
주님이라는 가치보다 자신이 놓아야 할 재물의 가치에 무게 중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근심하며 주님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키소', '코소', '카소'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의 무게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과 나의 인생의 최우선이 되어 주옵소서. 물질로 인해, 분주함으로 인해, 환경으로 인해 주님을 잊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적용

- 내가 짐작하거나 조금하게 여기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다시금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는 하루가 되어 봅시다.
-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사순절 기간동안 주님께 올려드릴 것을 결단해 봅시다.

사순절 26DAY

사순절 26DAY

매일 묵상

본문읽기

요엘 2장 12~14절, 18절

- 12 여호와와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 13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 14 주께서 흑시 마음과 뜻을 들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 18 그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묵상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스라엘에서 '경건한 유대인'이 되려면 반드시 요구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구제', '기도', '금식'을 해야 합니다.

이들에게는 '기도는 사람을 낙원의 중간 지점까지 데려가고, 금식은 문 앞까지 이르게 하며, 구제는 거기에 들어가게 한다.'라는 전승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제, 기도, 금식은 형식은 사람을 향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옷보다,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을 찢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요엘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유다백성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우상숭배 속에 살아갔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요엘 선지자는 여호와께 돌아오라 외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통하며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길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진 곳은 없는지 이시간 다시금 돌아봅니다. 우리의 심령을 경비케하시고 자복케하셔서 애통하는 심령으로 아버지께 돌아설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적용

- 나의 믿음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하루를 살아봅시다.

- 오직 하나님과 나만 아는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사순절 27DAY

사순절 27DAY 매일 묵상

본문읽기

요한복음 4장 10~15절

- 1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 11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 12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 1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 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 15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묵상

그런 물을 내게도 주소서

사막에서 오래 살아온 베드윈(Bedouin) 측은 어떻게 물을 찾아내어 해결할까요?

모래뿐인 뜨거운 곳이라도 물이 조금씩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있는 곳의 온도는 메마른 곳과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윈 측은 사막을 걸으면서, 이처럼 미세한 온도 차이를 발바닥으로 감지한다고 합니다.

목마름과 갈급함이 그들의 발을 이처럼 민감하게 변화시켰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을 향한 이러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삶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을 가진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서는 그녀가 가지고 있는 간절함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셨습니다.

그것은 물이 아닌 예수님 자신이었고 복음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의 가장 목마름의 부분이 주님을 통해 해소되었듯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해갈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은혜에 목마르길 원합니다.
늘 채워지지 않는 세상 속에서 더 담기위해 분주히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의 생수가 흐르길 소망하오니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적용

-은혜에, 기도, 찬양에, 말씀에 목마름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봅시다.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말씀 한 구절을 암송해봅시다.

사순절 28DAY 매일 묵상

본문읽기

출애굽기 24장 12~18절

- 1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올번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 13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 14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 15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 16 여호와와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옛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 17 산 위의 여호와와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 같이 보였고
- 18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사십 일 사십 야를 산에 있으니라

묵상

사십 일, 사십 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사십 일, 사십 야를 머무르며 출애굽기 20~31장에 이르는 긴 계명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에 대한 계명, 도덕적인 계명, 성막과 성소에 대한 계명, 안식년에 관한 계명, 제사장에 대한 계명 등 헤아리기 어려운 많은 계명들이었습니다.

어찌보면 그 기간은 모세에게 있어서는 턱없이 부족하고 짧은 기간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십 일을 견디지 못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말씀을 받는 모세와 받을 준비가 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의 극명한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태도로 서있습니까?

40일이라는 사순절의 기간이 하루하루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부족함을 느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넘어진 모습입니까?

우리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40일이라는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심령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인쳐주시고 다들 어 주옵소서. 상대적인 시간 앞에 은혜의 긴급함이 생기게 하시고 더 주님을 알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적용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온 힘과 정성을 기울여서 한 정성의 성경을 읽고, 한 편의 설교를 들읍시다.

사순절 29DAY

사순절 29DAY 매일 묵상

본문읽기

창세기 12장 1~5절

- 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 4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
- 5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묵상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심으로 온 세상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자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며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람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자신이 한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사 55:3)

이런 영원하고 확실한 은혜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오늘'은, 즉 현재(present)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present)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게 주신 이 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가치의 시간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나갈 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은혜가 임할 것을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적용

-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나의 신앙고백으로 바꾸어서 고백해 봅시다.

- 오늘 하루를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가지있게 보내도록 합시다.

사순절 30DAY

사순절 30DAY 매일 묵상

본문읽기

누가복음 20장 9~15절

- 9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 10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 11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 12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 13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 14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 15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묵상

사랑하는 아들

많은 사람들은 물질 만능주의와 쾌락주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욕망의 마지막 끝은 탐심의 늪입니다.

탐심과 소유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궁극적으로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이며,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포도원의 악한 농부는 그 시대의 종교지도자들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였으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스스로가 잘 섬긴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 해답이 17절에 나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는 머릿돌이 되지 못했습니다.

머릿돌은 건물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이 머릿돌이 되지 못한다면 그들과 똑같이 악한 농부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의 인생의 머릿돌 되시길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나의 목표가, 나의 만족이, 나의 위치가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만족과 주님 한분만이 내 삶의 머릿돌 되시길 소망합니다. 은혜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적용

-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머릿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해봅시다.

- 과거 바리새인과 같이 신실하게 신앙생활한다 포장하며 나의 신앙적 성취와 만족을 위해, 나의 공로를 위해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봅시다.

사순절 31DAY

사순절 31DAY 매일 묵상

본문읽기

로마서 5장 1~6절

- 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 2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 3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 4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 5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 6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묵상

소망을 이루는 삶

소망을 잃은 인간은 절망하고, 절망은 죽음을 불러옵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소망이란 구원의 완성,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소망은 이 땅에서 우리를 참고 인내하도록 격려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인내가 소망을 낳고 소망은 다시 인내를 격려하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넉넉히 이기는 도구가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소망의 제목은 오직 한분 예수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소망을 누구에게나 당당히 밝힐 수 있으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나 교회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소망을 하늘 아래 두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며 꿈꾸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내를 연단을 더하시고 그 연단을 통해 참된 소망을 세워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적용

- 그리스도인으로써의 참된 소망의 제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바르게 나의 소망을 두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사순절 32DAY 매일 묵상

본문읽기

시편 107편 17~22절

- 17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 18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 19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 20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 21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 22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묵상

감사의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찬송가 23장의 가사처럼, 만 입을 가지고도 주님이 주신 은총을 다 찬송할 수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가운데 우리의 뜻과 동일한 방향을 가진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인간적으로 불행해 보이는 것들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는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을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선한 목자를 바라보며 오늘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아버지께서 배풀어주신 그 사랑 우리가 다 기록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선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것들이 좋은 상황이던 불행한 상황이던 나의 목자는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적용

- 최근에 감사한 것들과 그 이유를 찾아 다시 묵상해 봅시다.

- 오늘 내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을 감사로 반응해 봅시다.

사순절 33DAY

사순절 33DAY

매일 묵상

본문읽기

하박국 3장 16~19절

- 16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배에 들어왔으며 내 등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 17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
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 18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 19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묵상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송*이라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 그래도 감사, 그러나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렇지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니까 감사, 아주 그냥 감사, 그리 하실지
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매
일감사, 항상 감사, 쉬지말고 감사..."

이 찬양의 가사는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상황은 하나도 없음을 보
여줍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환경보다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그의 믿음을
두고 고백합니다.

상황보다 위대한 것, 환경보다 더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는 하나님 한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럴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
니다.

믿음은 양적인 문제가 아니라 질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수용할 때 믿음이 성숙되고 깊
어집니다.

우리의 기도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순간 아버지를 향한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열매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로 말미암아 즐거워 한다는 하박국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적용

- 내게 주어진 장미꽃 가시를 놓고도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반응으로 가
득한 하루를 살아봅시다.

사순절 34DAY

사순절 34DAY 매일 묵상

본문읽기

누가복음 6장 27~31절

- 27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 28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 29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겹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 30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 31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묵상

사랑하며 선대하며

동화작가 안데르센은 가난한 구두 수선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철자법도 모르는 소년이었지만, 훗날 그의 장례식에 덴마크 국왕과 왕비가 참석할 정도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아름다운 동화를 쓸 수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나에게 베풀어진 작은 복에 감사했습니다. 나는 가난도 복이라고 믿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역경은 나의 복이었지요. 나는 가난했기에 [성냥팔이 소녀]를 쓸 수 있었고, 나는 늘 못생겼다 놀림을 당했기에 [미운오리새끼]를 쓸 수 있었으니까요."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바라본다면 더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아픔을 주는 그 원수들이 있기에 우리는 더욱 주님을 의지하면 살아가게 되듯이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원수에게조차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 역시 나를 미워하고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선대할 수 있는 긍휼함을 주시옵소서. 내인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적용

- 나와 관계가 입종있던 지체가 있다면 먼저 마음으로 용서하는 우리가 됩시다.

- 오늘 하루는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화를 내기보다는 이해하려 노력하여 살아봅시다.

사순절 35DAY

사순절 35DAY

매일 묵상

본문읽기

누가복음 19장 45~48절

- 45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46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47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48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묵상

꾸짖으시며

주님께서는 오늘 월요일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성전이 부패하고 더러워졌습니다.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고 그 모습을 보신 주님은 가슴이 아파하시며 거칠게 행동하십니다. 늘 온화하고 부드러운 예수님께서서 볼 수 없던 행동과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기도의 장소로 회복하고 백성에게 위로와 사랑과 공의와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본래 모습으로 재건하고 싶으셨습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며 우리 한국 교회를 돌아보며, 한사람 한사람이 주님의 몸된 성전이기애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와 한국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으로써 온전히 그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

소망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우셨는데 우리의 모습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이천년전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시고 회복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적용

-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해 힘쓰는 하루가 됩시다.
- 고난주간 새벽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과 기도으로써 소통하기를 결단해 봅시다.

사순절 36DAY 매일 묵상

본문읽기

누가복음 22장 14~20절

- 14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 15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 16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 17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 18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 19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 20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묵상

마지막 식탁에 앉으사

유월절을 기념하며 잡은 양의 피로 허한 죄를 씻는 은총을 입려고 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음으로 정한 십자가의 길로 떠나셨습니다.

자신의 때를 이미 아셨던 주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떡을 떼어 감사 기도를 하시고 친히 나누어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들어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부어지는 내 피, 새언약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 주님의 삶을 기리며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식탁에는 사랑, 자비, 긍휼, 위로, 생명, 회복과 치유가 담긴 소중한 영의 음식이 있습니다.

자신을 버려 친히 음식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주님의 거룩한 생명에 참여하여서는 성찬을 위해 지금부터 감사와 기도로 그 떡과 잔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합니다.

우리의 기도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욱 묵상하게 하시고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결한 심령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이 한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적용

-성찬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되새길 수 있도록 준비하며 거룩하게 구별된 주의 백성들로 세워나갑시다.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하루를 살아갑시다.

사순절 37DAY 매일 묵상

본문읽기

누가복음 22장 39~46절

- 39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 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 40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 41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여
- 42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 43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 44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 45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 46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묵상

의탁하시며

순종은 내 생각과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의 바탕에는 신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마칩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혼인잔치 중에 떨어진 포도주를 만드신 '가나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부탁에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달라는 어머니의 부탁과는 차원이 다른 생명을 내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순종의 기도를 드리며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이런 모습으로 서길 원합니다. "아버지가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움직여 주세요"가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과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던 주님의 모습을 닮길 원합니다. 내 뜻에 아버지의 뜻을 끼워맞추는 것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의 인생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나이다 아멘.

적용

-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기 원하시는 뜻을 생각하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하루를 살아봅시다.
- 나의 모든 뜻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기도문을 적어 고백해 봅시다.

사순절 38DAY

사순절 38DAY 매일 묵상

본문읽기

마태복음 27장 11~19절

- 11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 12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 13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 14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 15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 16 그 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 17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 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 18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 준 줄 알이더라
- 19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율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묵상

빌라도 앞에 서서

빌라도 앞에 서신 예수님은 당당한 모습입니다. 죄인의 기색은 조금도 없이 의연하시고, 오히려 그분 앞에 빌라도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는 유대 지도자들의 충동 때문에 예수님을 재판하고 있지만, 아내가 자신에게 전한 말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무리에게 넘겨주며 십자가형을 허락하지만, 자신의 손을 씻으며 자신은 책임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도망치는 비겁한 모습까지 보여줍니다. 주님은 세상의 통치권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실 참된 왕으로써의 기쁨이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혼돈의 세상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도 이런 기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위축되고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써의 기쁨, 구원받은 백성으로써의 자부심이 우리에게도 묻어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성품과 인격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세상에 동조되어 우리의 모습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써의 품위와 품격을 드러내며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적용

-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의 자리에서 당당히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실천하는 하루가 되어봅시다.
- 하나님의 자녀로써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하루가 되도록 그리스도인임을 수시로 묵상하는 하루가 되어봅시다.

사순절 39DAY

사순절 39DAY

매일 묵상

본문읽기

마가복음 15장 33~38절

- 33 제육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하더니
- 34 제구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 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 35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 36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싯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 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주나 보자 하더라
- 37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 38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묵상

십자가에 달리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 금요일입니다. 간신히 일곱 마디 밖에 남기지 못한 예수님의 처절한 십자가 고통을 생각해 봅니다. 작은 고통 하나도 견디지 못하고 억울해하며 서러워하고 슬퍼하는 우리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주님의 외침에는 하나님의 부재를 넘어서 고통과 죽음가운데 버려졌다는 상실감이 드러납니다.

시편 22편은 이러한 의인의 수난과 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 속에 버려지시고 내동댕이쳐진 것 같은 상실을 경험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온 세상에 비취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 금요일을 보냅니다.

우리의 기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고난을 떠올립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묵상합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기억합니다. 오늘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동참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적용

-성금요일 예배의 자리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깊이 묵상하여 나아가도록 합시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어려움을 선하고 의롭게 이기는 하루를 살아봅시다.

사순절 40DAY 매일 묵상

본문읽기

마가복음 15장 42~47절

- 42 이 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 43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히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 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 44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자가 오래나 묻고
- 45 백부장에게 알아 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 46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으매
- 47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묵상

장사 지낸 바

금요일 저녁 일몰과 함께 안식일이 시작됩니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범죄자를 처형한 경우와 같이 치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시신이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의와 사랑을 담아 세마포로 정성껏 예수님의 시신을 싸고, 바위 속에 마련한 무덤에 넣어 장사를 지냅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이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귀한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마지막 날인 죽음의 날입니다.
 온 인류를 살리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와 함께 죽으신 주님을 믿고 죄에 대한 죽음을 경험할 때 우리도 비로소 주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죽음을 기억하며 묵상하는 오늘 지난 40일의 여정을 떠올리며 주님의 고난을 얼마나 동참했는지 돌아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헛된 자아들은 죽고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새사람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적용

- 무덤 속에 계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하루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봅시다.

참고 문헌

번역서적

- Ames F. White. 하나님의 자기 주심의 선물: 성례전. 김운용 역. 서울: 예배와설교아카데미, 2006.
- Constance M. Cherry. 예배건축가. 양명호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15.
- Leonard Sweet.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 Leonard Sweet. 관계의 영성. 윤종석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07.
- Leonard Sweet.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김영래 역. 서울: 좋은 씨앗, 2002.
- Leonard Sweet. 테블릿에서 테이블로. 장택수 역. 서울: 도서출판 예수전도단, 2015.
- Lesslie Newbigin. 교회란 무엇인가. 홍병룡 역.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 출판부, 2011.
- Martin Lloyd Jones. 설교와 설교자. 정근두 역. 서울: 복있는사람. 2005.
- Walter Brueggemann. 사순절 묵상집. 박형국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18.

국내서적

- 강성은. *말씀과 함께하는 사순절 묵상집*. 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교육원, 2011.
- 김난도. *트랜드코리아 2020*. 서울: 미래의 창, 2019.
- 김순환. *21세기 예배론*.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3.
- 김운용. *예배, 하늘과 땅이 잇대어지는 신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15.
- 김화영. *광야에서 부르는 노래*. 서울: 유페이퍼. 2014.
- 박상진. *가정 중심의 신앙교육*. 서울: 두란노. 2019.
- 설은주. 『가정사역론』. 예영커뮤니케이션. 1997
- 이현아. 『사순절 묵상집 이 여인을 보라』. 평화교회연구소. 2019
- 오현철. *설교와 환경*. 서울: 기쁜날. 2015.
- 주승중. *성경적 설교의 원리와 실제*. 서울: 예배와설교아카데미. 2006.

논문, 잡지, 기타간행물

소현정.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영향과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8.

이광현. 한국교회의 침체원인분석과 전문인선교에 대한 목사후보생의 인식조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016.

웹사이트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56254>.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Daewon Park

Place and Date of Birth: Seoul, South Korea, January 11, 1982

Parent`s Names: Sungbok Park and Junge Kim.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Pauchai High School 227, Godeok-ro, Gangdong-gu, Seoul, Korea	Diploma	Feb 12, 2000
Collegiate: Asia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1276, Gyeonggang-ro, Okcheo-myeon, Yangpyeong-gun, Gyeonggi-do, Korea	Th.B.	Feb 19, 2008
Graduate: Seoul Jangsin University 145, Gyeongang-ro, Gwangju-si, Gyeonggi-do, Korea	M.div	Feb 5, 2013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Daewon Park

Name typed

March 12, 2020

Date